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43-10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 은 영 연구원

공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 지 숙 연구원

요 약

연구의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현황 및 향상 정도를 파악하고, 주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전문지원기관의 조사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이 보고서에선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려고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목적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첫째, 정주 만족도 설문 내용 중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을 점검했다. 국내외 삶의 질 지표의 ‘전반적인 웰빙’ 조사 문항과 비교하여, 현재의 문항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제안했다.

둘째, 2017년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했다.

셋째, 그동안 축적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의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변화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인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읍 지역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변화 추이도 비교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내의 공간 특성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

그동안 농어촌 주민의 포괄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려고 활용해온 문항인 ‘지금의 행복감’을 ‘주관적 웰빙’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지금의 행복감’ 문항은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웰빙의 5개 문항 중 4개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다. 5개 측정 문항의 응답을 평균하여 산출한 주관적 웰빙 지수는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문화·여가 부문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는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해당 부문의 정책 투입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문화·여가 부문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점수는 다른 부문보다 낮다. 문화·여가 부문과 관련해서, 중심지에 집중된 여가 서비스를 배후지까지 전달할 방안을 모색하고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정책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과 관련해서,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조사에서 농어촌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 불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련 정책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도 분석되었다. 그런데 세부 항목 중 ‘취약계층 복지 지원’의 만족도는 2015년 이후 하락했고, 2017년도에 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정책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 중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면 지역 주민이 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양질의 학교 교육’에 대한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2016년부터 40점대(100점 만점)로 하락했다.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도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약 10점이었고, 면 지역의 만족도 점수는 4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면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대 정책 부문 중 유일하게 환경·경관 부문의 만족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원인을 파악하려고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 동안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0.1%였다. 농어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반면,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정책 부문에 대한 만족도 중 유일하게 이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경관은 주민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다. 농어촌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2

제2장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점검 및 개편 방안

1. 조사 항목의 점검 및 개편 목적 3
2.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문항 점검 5
3.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세부 문항 점검 10

제3장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3
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18
3.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23
4. 정주 여건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 및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 ... 37

제4장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시계열 분석

1. 기존의 정주 만족도 조사 과정 43
2. 분석 개요 45
3.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시계열 분석 47
4. 읍 지역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차이 분석 6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 67
2. 시사점 69

부록 1. 삶의 질 시행계획의 정책 사업과 정주 만족도 문항 비교	73
부록 2. 2016년 및 2017년 만족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 항목	79
부록 3. 2017년 도시·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평균 점수	81
부록 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전년 대비 증감	83
부록 5.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평균 점수 변화	85
부록 6. 2012년~2017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설문 내용	87
부록 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다원배치분산분석 결과	89
부록 8. 농어촌 주민의 세부 항목 만족도 다원배치분산분석 결과	91
부록 9. 읍·면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94
부록 10. 읍·면 지역 주민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95
부록 1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표	98
참고문헌	106

표 차례

제2장

- <표 2-1> 2017년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4
- <표 2-2>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측정 설문 문항 9
- <표 2-3> 2017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추가 설문 문항 10
- <표 2-4> 2017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신규 설문 문항 11

제3장

- <표 3-1> 행정 구역별 도시 지역(동 지역)과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표본 수 14
- <표 3-2>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 15
- <표 3-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6
- <표 3-4>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7
- <표 3-5>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평균 점수 18
- <표 3-6>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응답 비율 19
- <표 3-7>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20
- <표 3-8>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포괄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22
- <표 3-9> 농어촌 주민의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지역 발전 전망
응답 비율 변화 22
- <표 3-10>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24
- <표 3-11> 2016년, 2017년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7
- <표 3-12> 2016년, 2017년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8
- <표 3-13> 2016년, 2017년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9

<표 3-14> 2016년, 2017년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9
<표 3-15> 2016년, 2017년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30
<표 3-16> 2016년, 2017년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31
<표 3-17> 2016년, 2017년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32
<표 3-18>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	34
<표 3-19> 2012년~2017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35
<표 3-20> 변수 설정 및 측정 도구	38
<표 3-21> 정주 생활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39
<표 3-22> 농어촌 주민의 이주 희망 지역 및 이유	40
<표 3-23> 이주 의향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41

제4장

<표 4-1> 시계열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	46
--------------------------------	----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3-1> 행복감,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21
<그림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25
<그림 3-3>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6
<그림 3-4>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7
<그림 3-5>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8
<그림 3-6>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9
<그림 3-7>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30
<그림 3-8>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31
<그림 3-9>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31
<그림 3-10> 2017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36

제4장

<그림 4-1>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시계열 분석	48
<그림 4-2> 마을 발전 전망 관련 추가 설문 조사 결과	48
<그림 4-3> 7대 부문별 평균 만족도 시계열 분석 결과	51
<그림 4-4> 보건·복지 부문, 교육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53
<그림 4-5>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54
<그림 4-6>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55
<그림 4-7> 문화·여가 부문 관련 추가 설문조사 결과	56
<그림 4-8> 환경·경관 부문, 지역사회 부문, 안전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57
<그림 4-9> 환경·경관 부문 관련 추가 설문조사 결과	58
<그림 4-10> 읍 지역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정책 부문별 만족도 변화 추이	61

<그림 4-11>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	62
<그림 4-12>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	63
<그림 4-13>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	64
<그림 4-1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화·여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	65

1. 연구 배경과 목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라고 줄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고 줄임)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앙 행정기관들의 협의기구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2015년부터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2015~2019년)(이하,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라고 줄임)에 따라 15개 부처, 3개 청의 중앙행정기관, 14개 시·도가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84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문지원기관의 조사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이 보고서에선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려고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목적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2017년 정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했다. 정주 여건에 대해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정주 만족도 조사가 올해 6년차에 접어들었다. 6년 동안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되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조사 항목을 점검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진행했다. 시계열 분석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정주 만족도 설문 내용 중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문항을 점검했다. 국내외 삶의 질 지표의 ‘전반적인 웰빙’조사 문항과 비교하여, 현재의 조사 문항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제안했다.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의 세부 문항도 함께 점검했다.

둘째, 2017년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주 만족도를 비교 분석했다.

셋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축적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읍 지역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확인했다.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공간 특성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조사 항목의 점검 및 개편 목적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은 <표 2-1>와 같다. 크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정책의 중요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이주 의향 및 이유,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농어촌 주민의 삶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별 중요도’는 응답자에게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7대 정책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다.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7대 정책 부문별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각 부문별로 3~6개의 세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주 의향 및 이유’는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4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점검 및 개편 방안

〈표 2-1〉 2017년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의미의 삶의 만족도(행복감)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 거주하는 사군 및 마을의 발전 가능성 인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부문별로 3~6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이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지역 ○ 거주 기간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 상태 ○ 자가용 차량 소유 유무 ○ 가족 구성 ○ 가구 소득 ○ 주택 형태, 주택 점유 형태 ○ 가정 생활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여부(귀농귀촌한 경우, 연 수) ○ 마을 일(행사나 모임)에 대한 참여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문항과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점검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농어촌 주민의 삶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려는 설문 문항이다. 국제기구와 국내 삶의 질 지표에서 조사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항목과 내용이 흡사하다. 그런데 이 조사 항목을 ‘나는 지금 행복하다’의 단일 척도로만 조사하고 있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주관적 웰빙’ 조사의 동향을 살펴보고 싶다. 이 과정으로 설문 내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하려고 한다.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정주생활권에서 생활에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시설이나 여건에 대한 만족도(박성복, 2013; 최윤지 외, 2014)'를 확인하려는 조사 항목이다. 7대 정책 부문별로, 3~6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된다. 2015년에는 선행 연구의 조사 문항과 비교하여 설문 문항을 일부 수정했다. 2016년에는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 부문별 성과 목표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핵심 항목을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성과를 농어촌 주민이 어떻게 체감하는지 정주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했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설문 문항을 추가했다.

2.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문항 점검

그동안 '나는 지금 행복하다'의 단일 문항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농어촌 주민 삶의 행복감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면, '행복감'의 단일 문항은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근거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타당성 있는 설문 문항을 고려해봐야 한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영역인 '주관적 웰빙'의 측정 도구를 도입하고자 한다.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행복(happiness), 좋은 삶(good life), 만족(satisfaction) 등을 평가한다(Diner & Tov, 2012). 주관적 웰빙 지표로 측정하려는 내용은 우리 조사에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를 통해 확인하려는 바와 같다. 우리 조사에서도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주관적 웰빙' 지표를 활용하려고 한다. 신뢰성을 확보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더 정교하게 측정하려는 것이다.

2.1. 주관적 웰빙 측정 배경과 동향

GDP와 같은 경제지표가 한 사회의 발전 정도를 모두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1960년대부터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이 시작되었다. 소득, 건강, 교육, 환경, 문화생활 등 다차원으로 구성된 객관적 지표가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나 조건을 측정하지만, 개인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증가했다. 그 결과, 1970년대부터 삶의 질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관적 지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Strumpel, 1972; 이현송, 1997). 사회 발전의 최종적인 목표가 경제 성장이 아닌 ‘좋은 사회’이자 개별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개인의 만족감과 행복감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주관적인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또는 주관적인 웰빙(Subjective well-being) 측정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심리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는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건강 상태 등이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주관적 웰빙’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영역으로서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관련 연구가 축적되고 측정 방식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면서, 현재 국제기구 및 각 국가의 삶의 질 측정지표에 주관적 웰빙¹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박주언 외, 2012)².

2009년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 ‘경제적 성취 및 사회 발전 측정’(Stiglitz et al., 2009)에서는 국가통계기관에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고

1 ‘삶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인 삶의 질’, ‘좋은 삶’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다. 1984년 Ed Diener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소개했고, 그 후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2 삶의 질 지표를 이루고 있는 소득, 건강, 교육 등의 영역 안에 주관적인 인식 또는 경험을 묻는 주관적인 지표가 존재한다. ‘주관적 웰빙’은 각 영역 안에 포함된 주관적 지표와 구별되는, 개인의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 등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삶의 질 지표의 하나의 영역이다.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 후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통계청에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시작했다(OECD, 2013; Ven, 2015). OECD의 2011년 보고서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OECD, 2011)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11개 하위 영역 중 하나의 영역으로 주관적 웰빙을 설정했다.³ 2013년엔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OECD, 2013)을 발간하여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려는 핵심적인 설문 문항을 제시했다. UN에서는 2012년부터 주관적 웰빙의 측정 결과를 가지고 국가 비교,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행복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Helliwell et al., 2015).

2.2. 주관적 웰빙의 개념과 측정 도구

Diener(1984)는 주관적 웰빙을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관적 웰빙은 주관적인 삶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설문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바와 맞닿는다.

주관적 웰빙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했다. Diener(1984)는 주관적 웰빙이 삶에 대한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정의했다. Hoorn(2007)는 주관적 웰빙이 사람의 감정적 반응, 삶에 대한 영역별 만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EU 사회지표 체계 분석틀’에서는 삶의 질 측정 영역의 하나로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면서, 주관적 웰빙을 정서적, 인지적,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정의했다(Berger-

³ OECD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Better Life Index(BLI)로, 주거, 소득, 노동, 사회적 관계, 교육, 환경, 시민적 참여, 건강 상태, 안전, 일과 가정의 양립, 주관적 웰빙 등 총 11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진다(<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Schmitt & Noll, 2000).

미래에 대한 만족과 기대감을 의미하는 ‘심리적 번영(eudaimonia)’도 주관적 웰빙의 구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주관적 웰빙은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인지적 평가’와,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정서적 평가’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이 과거와 현재의 삶을 평가하는 반면, 미래에 대한 평가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yff & Keyes(1995)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확인하고자 개인의 자율성, 의사결정권, 타인과의 관계, 삶의 목적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와 영국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심리적 번영(eudaimonia)’으로 구분하고, 주관적 웰빙의 구성 요소로 포함했다.

2.3. OECD 삶의 질 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OECD의 삶의 질 지표인 Better Life Index(BLI)에서 2012년부터 지표의 하나의 영역으로 ‘주관적 웰빙’을 추가했다. 2013년엔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선, 70년대부터 진행된 주관적인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주관적인 웰빙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Eurostat에서도 매년 EU 각국의 삶의 질 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보고서 ‘Quality of life’를 발간한다.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을 따라 2013년부터 ‘전반적인 삶의 만족(overall life satisfaction)’을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주관적 웰빙을 측정했다.⁴

OECD 삶의 질 지표(BLI)의 한 영역인 ‘주관적 웰빙’은 삶에 대한 평가, 정서, 심리적 번영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OECD, 2012). ‘삶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삶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확인한다. ‘정서’는 개인의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이

⁴ Eurostat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stat/>)

삶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보다 어떻게 경험하는지 포착한다. 정서는 보통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심리적 번영’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 보고서에선 주관적 웰빙 측정의 핵심 설문 문항으로 총 5개를 제시했다. 평가적 측면인 ‘삶에 대한 만족도’ 1개 문항, 정서적 측면인 ‘어제 경험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3개 문항, 심리적 번영(eudaimonia)에 대한 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국내 통계청에서도 2000년부터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발표하였다. 현재 12개 영역 80개 지표로 구성된다. 2014년부터 12개 영역 중 ‘주관적 웰빙’을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은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의 핵심 설문 문항과 같은 문항을 가지고 <표 2-2>와 같이 측정한다. 201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해당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표 2-2>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측정 설문 문항

구분	질문내용	척도
삶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0~10
정서 경험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0~10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십니까?	0~10
유클라모니아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

2.4. ‘행복감’ 조사 문항 개선 방안

그동안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려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의 설문 문항을 활용했다. OECD 삶의 질 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면서 더

10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점검 및 개편 방안

정교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정주 만족도 조사의 ‘행복감’ 문항을 ‘주관적 웰빙’의 5개 설문 문항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학문적인 근거와 타당성이 검증된 OECD 삶의 질 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측정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조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표 2-3> 2017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추가 설문 문항

질문내용	척도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1~10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10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1~10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십니까?	1~10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0

2017년 정주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기존의 문항인 ‘나는 지금 행복하다’와 함께, ‘주관적 웰빙’의 5개 설문 문항도 조사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0~10의 11점 척도를 활용한 반면, 이 조사는 <표 2-3>과 같이 다른 설문 항목과의 척도를 통일시키려고 1~10의 10점 척도를 활용했다.

3.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세부 문항 점검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성과를 놓어준 주민이 어떻게 체감하는지, 정주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했다. 제3차 삶의 질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 사업과 기존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을 비교했다<부록1>. 놓어준 주민이 어떻게 체감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설문 문항을 추가했다. <표 2-4>와 같이 보건·복지 부문에 1문항, 교육 부문에 2문항, 정주생활기반 부문에 1문항, 문화·여가 부문에 1문항 등 총 5문항을 추가했다.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 과제 중 ‘농어촌 복지 전달 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4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려고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의 문항을 추가했다. 교육 부문의 정책 과제 중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에 해당하는 2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려고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와, 1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를 추가했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정책 과제 중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에 해당하는 6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려고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를 추가했다. 문화·여가 부문의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정책 과제에 해당하는 2개의 사업 성과를 측정하려고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를 추가했다.

〈표 2-4〉 2017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신규 설문 문항

부문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 정책 사업	신규 설문 문항
보건·복지	농어촌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농어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복모음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형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어촌건강장수마을	
교육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정주 생활기반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어촌 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개발	
		귀농/어·귀(산)촌 활성화 지원	
		산촌주민 역량강화 사업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문화·여가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1. 조사 개요

1.1 조사 방법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여 전 지역의 동을 도시로, 전 지역의 읍·면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표본을 추출했다. 도시 지역은 700명을 할당하고, 농어촌 지역은 2,000명을 할당할 것을 계획하고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진행했다. 최종 표본 수 3,030명 중 동 지역 주민 응답자는 1,039명, 읍·면 지역 주민 응답자는 1,991명이었다. 행정구역별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주민의 표본 수는 <표 3-1>과 같다.

조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전화 인터뷰 조사(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와 온라인 조사(Online-survey)를 병행했다⁵. 2017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1달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pm 1.78\%p$ 이다.

⁵ 도시 및 농어촌 주민 대상의 정주 만족도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여 진행했다.

14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표 3-1〉 행정 구역별 도시 지역(동 지역)과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표본 수

행정 구역	모집단	동 지역 표본 수	읍면 지역 표본 수	합계
서울	8,367,267	314	0	314
부산	2,947,339	54	2	56
대구	2,043,768	37	7	44
인천	2,416,740	49	14	63
광주	1,169,222	18	0	18
대전	1,220,052	20	0	20
울산	939,908	10	3	13
세종	202,090	0	5	5
경기	10,321,466	257	612	869
강원	1,289,964	43	177	220
충북	1,307,274	26	163	189
충남	1,721,506	37	218	255
전북	1,525,647	48	134	182
전남	1,572,748	28	176	204
경북	2,247,533	44	212	256
경남	2,747,103	46	241	287
제주	520,903	8	27	35
합계	42,560,530	1,039	1,991	3,030

주요 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7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등이다<표 3-2>.6 전년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고자 5개 문항을 추가했다. 전년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도 5개의 문항을 추가했다.

6 <부록 11>의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표 참조

<표 3-2>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 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감 ○ 주관적 웰빙 측정 5문항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 거주하는 사군 및 마을의 발전 가능성 인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에 따른 1~3 순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부문별로 3~6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1.2.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전체 조사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3-3>과 같다. 조사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인천·경기 거주자가 30.8%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30대가 각각 30.3%, 30.0%로 가장 많았다. 10년 미만 거주자가 45.9%로 가장 많았고, 가구 연소득 4,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45.1%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 주민 1,991명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3-4>와 같다. 인천·경기 거주자가 31.4%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3%로 가장 많았다. 10년 미만 거주자가 46.2%로 가장 많았고, 가구 연소득 4,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38.1%로 가장 많았다. 농업·어업·임업 종사자가 11.8%이었고, 사무·관리직 종사자가 37.8%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 주민 응답자에서 귀농·귀촌인 비율은 12.4%이다.

16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표 3-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3,030	100.0%	전체		3,030	100.0%
거주 지역	서울	314	10.4%	교육 수준	무학	34	1.1%
	인천·경기	932	30.8%		초졸·중졸	221	7.3%
	대전·충청	469	15.5%		고졸	586	19.3%
	광주·전라	404	13.3%		대졸	1,933	63.8%
	대구·경북	300	9.9%		대학원 이상	250	8.3%
	부산·울산·경남	356	11.7%		모름·무응답	6	0.2%
	강원·제주	255	8.4%		건강 상태	좋음	1,246
성별	남성	1,522	50.2%	건강 상태	보통	1,185	39.1%
	여성	1,508	49.8%		나쁨	599	19.8%
연령대	19~29세	359	11.8%	가정 생활 만족도	만족	1,425	47.0%
	30대	908	30.0%		보통	1,200	39.6%
	40대	919	30.3%		불만족	398	13.1%
	50대	478	15.8%		모름·무응답	7	0.2%
	60세이상	366	12.1%	가족 구성	독신 가구	346	11.4%
거주 기간	10년 미만	1,391	45.9%	가족 구성	1세대 가구	537	17.7%
	10~19년	699	23.1%		2세대 가구	1,824	60.2%
	20~29년	397	13.1%		3세대 가구	227	7.5%
	30~39년	221	7.3%		조손 가구	8	0.3%
	40년 이상	322	10.6%		기타	88	2.9%
혼인 상태	기혼	2,136	70.5%	미성년 가족유무	있음	1,114	51.9%
	미혼	894	29.5%	미성년 가족유무	없음	1,033	48.1%
연간 가구 소득	1000만 원미만	335	11.1%	귀농귀촌 여부	있음	282	9.3%
	1000만 원대	255	8.4%		없음	2,748	90.7%
	2000만 원대	423	14.0%	직업	농업·임업·어업	243	8.0%
	3000만 원대	593	19.6%		자영업	265	8.7%
	4000만 원 이상	1,368	45.1%		사무·관리직	1,330	43.9%
	모름·무응답	56	1.8%		생산·기능·노무	330	10.9%
					주부	446	14.7%
			학생		69	2.3%	
			무직·퇴직		38	1.3%	
			기타	309	10.2%		

〈표 3-4〉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1,991	100.0%	전체		1,991	100.0%
거주 지역	서울	0	0.0%	교육 수준	무학	34	1.7%
	인천·경기	626	31.4%		초졸·중졸	216	10.8%
	대전·충청	386	19.4%		고졸	455	22.9%
	광주·전라	310	15.6%		대졸	1,169	58.7%
	대구·경북	219	11.0%		대학원 이상	111	5.6%
	부산·울산·경남	246	12.4%		모름·무응답	6	0.3%
	강원·제주	204	10.2%		건강 상태	좋음	825
성별	남성	959	48.2%	보통	755	37.9%	
	여성	1,032	51.8%	나쁨	411	20.6%	
연령대	19~29세	248	12.5%	가정 생활 만족도	만족	952	47.8%
	30대	603	30.3%		보통	797	40.0%
	40대	560	28.1%		불만족	235	11.8%
	50대	265	13.3%		모름·무응답	7	0.4%
	60세이상	315	15.8%	가족 구성	독신 가구	241	12.1%
거주 기간	10년 미만	919	46.2%	1세대 가구	1세대 가구	439	22.0%
	10~19년	411	20.6%		2세대 가구	1,082	54.3%
	20~29년	218	10.9%		3세대 가구	158	7.9%
	30~39년	158	7.9%		조손 가구	8	0.4%
	40년 이상	285	14.3%	기타	63	3.2%	
혼인 상태	기혼	1,412	70.9%	미성년 가족유무	있음	714	54.5%
	미혼	579	29.1%		없음	597	45.5%
연간 가구 소득	1000만 원미만	296	14.9%	귀농귀촌 여부	있음	246	12.4%
	1000만 원대	198	9.9%		없음	1,745	87.6%
	2000만 원대	301	15.1%	직업	농업·임업·어업	235	11.8%
	3000만 원대	381	19.1%		자영업	161	8.1%
	4000만 원 이상	759	38.1%		사무·관리직	752	37.8%
	모름·무응답	56	2.8%		생산·기능·노무	242	12.2%
					주부	314	15.8%
			학생		44	2.2%	
			무직·퇴직		21	1.1%	
			기타	222	11.2%		

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2.1. 행복감,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나는 지금 행복하다’의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평균 점수 모두 6.2점이었다.

<표 3-5>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평균 점수

(평균 점수/ 10점 척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시 지역(동 지역)	6.5 (n=1,269)	6.4 (n=950)	6.2 (n=1,039)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6.7 (n=1,775)	6.4 (n=1,950)	6.2 (n=1,991)
전체	6.6 (n=3,044)	6.4 (n=2,900)	6.2 (n=3,030)

2016년⁷에 비해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모두 행복감 평균 점수가 0.2점 가량 하락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평균 점수는 현재 조사 형태를 갖춘 2015년 조사부터 계속 하락했다. 2015년 조사 결과에서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평균 점수가 도시 주민보다 0.2점 가량 높았으나 2016년과 2017년 결과에서는 동일했다.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조사 결과를 부정적, 보통, 긍정적 응답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확인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⁷ 2016년 정주 만족도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여 진행한 조사 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주민 표본인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도 조사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현지통신원을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도별 결과 값을 엄밀히 비교하려고 2016년 조사 결과에서도 현지통신원 420명의 결과를 제외하였다.

비율이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했다. 2017년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6년에 비해 5%p 가량 하락했다.

<표 3-6>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응답 비율

(단위: %)

구 분	조사 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12년	19.7	44.6	35.7
	2013년	14.8	46.3	38.9
	2014년	9.6	49.5	40.9
	2015년	9.9	47.5	42.4
	2016년	10.9	53.9	35.1
	2017년	12.8	57	30.2

주1: 2012년~2013년 조사는 5점 척도(1점~5점),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점~10점), 2015년~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점~10점)를 사용했다. 5점 척도는 1점~2점 부정, 3점 보통, 4~5점 긍정으로 구분했다. 11점 척도는 0점~3점 부정, 4점~6점 보통, 7점~10점 긍정이다. 10점 척도는 1점~3점 부정, 4점~7점 보통, 8점~10점 긍정으로 구분하였다.

2017년 조사에서 시범 실시한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는 <표 3-7>과 같다. ‘요즘 삶의 만족감’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평균 점수가 동일했다. ‘어제 행복 정도’, ‘일의 가치’에 대해선 도시 지역 주민이 농어촌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어제 근심 또는 걱정’, ‘어제 우울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농어촌 주민보다 도시 주민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도시 주민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어제 행복 정도’, ‘일의 가치’와 같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근심과 걱정, 우울감과 같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선 도시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5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했다.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3번과 4번 문항의 답변을 역코딩하여⁸ ‘주관적 웰빙’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⁸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 ‘어제 행복 정도’, ‘일의 가치’의 문항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10점에 가깝지만, ‘어제 근심 또는 걱정’, ‘어제 우울 정도’의 문항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10점에 가깝게 응답하도록 설

도시 주민의 평균값은 5.4점, 농어촌 주민의 평균값은 5.5점으로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점수가 더 높았다. ‘어제 행복 정도’, ‘일의 가치’에선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평균 점수 격차가 0.1점, 0.2점이었으나, ‘어제의 근심 또는 걱정’과 ‘어제 우울 정도’에서 각각 0.3점, 0.5점이었다.

〈표 3-7〉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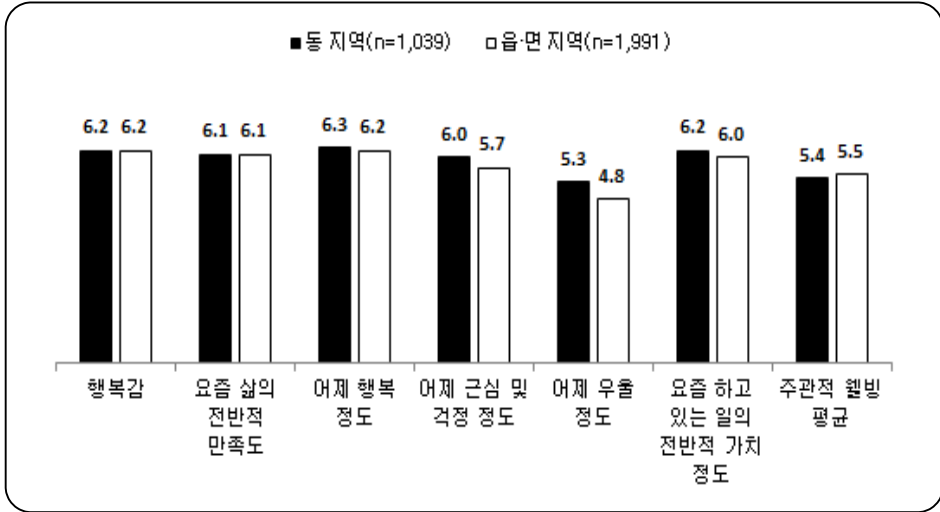
(평균 점수/ 10점 척도)

구분	1.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4.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십니까?	5.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평균 (3번, 4번 문항 역코딩)
도시 지역 (동 지역) n=1,039	6.1	6.3	6.0	5.3	6.2	5.4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n=1,991	6.1	6.2	5.7	4.8	6.0	5.5
전체 n=3,030	6.1	6.2	5.8	5.0	6.1	5.5

기존 조사에서 ‘지금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단일 문항으로만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확인했다. ‘주관적 웰빙’ 지표는 5개의 문항으로, 농어촌 주민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다. <그림 3-1>과 같이, ‘지금의 행복감’ 조사에선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차이가 없으나 주관적 웰빙의 5가지 문항 중 4개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고, 차이의 정도도 각각 달랐다. 도시 주민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에서도, 주관적 웰빙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계되었다. 주관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려고 했다. ‘어제 근심 또는 걱정’, ‘어제 우울 정도’의 답변을 부정적 답변일수록 1점에 가깝게 수정하고, 평균값을 계산했다. 즉, 5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10점에 가까울수록 주관적인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3-1〉 행복감,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2.2.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감을 조사하려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에 만족한다’의 설문 문항에 10점 척도로 답하게 했다. 도시 주민의 평균 점수는 6.3점, 농어촌 주민의 평균 점수는 6.2점이다. 도시 주민보다 농어촌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2016년과 동일한 결과다.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현재 행복감’ 평균 점수는 동일하고,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는 농어촌 주민이 더 높다. 그런데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점수는 농어촌 주민이 더 낮게 나타났다. 즉, 거주 지역의 정주 환경과 생활에 대해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와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의 문항에 대해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도시 주민의 평균 점수가 농어촌 주민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8〉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포괄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평균 점수/ 10점 척도)

구 분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도시 지역(동 지역)	6.7	6.3	6.8	6.7	6.9	6.8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6.5	6.2	6.0	6.2	6.4	6.5
전체	6.6	6.2	6.4	6.4	6.7	6.6

농어촌 주민의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와 ‘지역 발전 전망’에 대한 답변을 부정적, 보통, 긍정적 응답으로 구분하고 비율을 확인했다<표 3-9>.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했고,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7.5%p 가량 하락했다. 조사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을 발전 전망보다 시·군 발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농어촌 주민은 마을 발전 전망보다 시·군 발전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평균 점수로 보면, 2016년에 비해 올해 시·군 발전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표 3-9〉 농어촌 주민의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지역 발전 전망
응답 비율 변화

단위: %

구 분	조사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2013년	17.8	39.9	42.3
	2014년	9.5	40.9	49.6
	2015년	9.6	47.7	42.6
	2016년	10.8	51.2	38.0
	2017년	13.1	56.4	30.5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2년	28.3	28.3	43.4
	2013년	30.7	21.3	33.8
	2014년	24.0	40.2	27.7
	2015년	14.8	51.0	33.9
	2016년	18.3	50.5	31.2
2017년	13.2	55.8	31	

구 분	조사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2년	15.9	20.1	64.0
	2013년	17.2	20.6	46.5
	2014년	10.5	36.2	42.0
	2015년	9.1	49.7	40.9
	2016년	11.9	51.1	37.0
	2017년	9.8	55	35.2

주1: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2013년부터 도입한 세부 문항으로 2012년도에는 조사하지 않았다.

주2: 2012~2013년은 5점 척도(1점~5점), 2014년은 11점 척도(0점~10점), 2015~2017년은 10점 척도(1점~10점)로 조사하였다. 5점 척도는 1점~2점 부정, 3점 보통, 4~5점이 긍정으로 구분하였다. 11점 척도는 0점~3점이 부정, 4점~6점이 보통, 7점~10점이 긍정이다. 10점 척도는 1점~3점이 부정, 4점~7점이 보통, 8점~10점이 긍정으로 구분하였다.

3.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조사 결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조사했다.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모두 보건·복지 부문을 1순위로 꼽았다. 도시 주민은 2순위와 3순위로 각각 정주생활기반과 경제활동·일자리를 꼽았고, 농어촌 주민은 경제활동·일자리를 2순위로, 정주생활기반을 3순위로 꼽았다.

2016년 조사에서도 농어촌 주민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지역 여건으로 '보건·복지' 여건을 1위, '경제활동·일자리' 여건을 2위로 꼽았다. 2016년에 안전을 3위로 꼽았지만, 올해는 안전을 4위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생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의미하는 정주생활기반 여건을 3위로 꼽았다.

〈표 3-10〉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보건·복지	교육	정주 생활 기반	경제 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도시 지역	1순위 비율	(1,039)	24.9	12.8	20.3	19.2	5.7	5.6	11.5
		순위	1	4	2	3	6	7	5
	1~3순위 비율	(1,039)	17.6	11.1	18.1	15.6	12.3	10.9	14.4
		순위	2	6	1	3	5	7	4
농촌 지역	1순위 비율	(1,991)	27.5	11.6	15.5	21.3	6.9	5.2	12.1
		순위	1	5	3	2	6	7	4
	1~3순위 비율	(1,991)	20.4	12.1	14.6	16.8	12.0	10.1	14.0
		순위	1	5	3	2	6	7	4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정책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비교했다. 모든 부문에서 도시 주민의 만족도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문화·여가 부문이 도시 및 농어촌 주민 만족도 차이의 폭이 가장 컸고,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문화·여가 부문의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 차이는 1.4점, 보건·복지 부문은 1.2점, 교육 부문은 1.1점, 정주생활기반은 0.8점이다. 7대 부문 만족도를 모두 평균한 점수는 도시 주민이 6.7점, 농어촌 주민이 5.8점으로 나타나,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 차이는 0.9점이었다.

2016년도 조사 결과에서도 문화·여가 부문이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2.0점으로 가장 컸다. 2016년도 조사 결과에서 보건·복지 부문의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1.2점이었다. 교육 부문의 점수 차이 1.4점,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점수 차이 1.2점에 비해 차이 폭이 작거나 동일했다. 2017년 조사 결과, 교육 부문과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는 작년에 비해 좁혀졌지만, 보건·복지 부문의 차이 폭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7대 부문 중 보건·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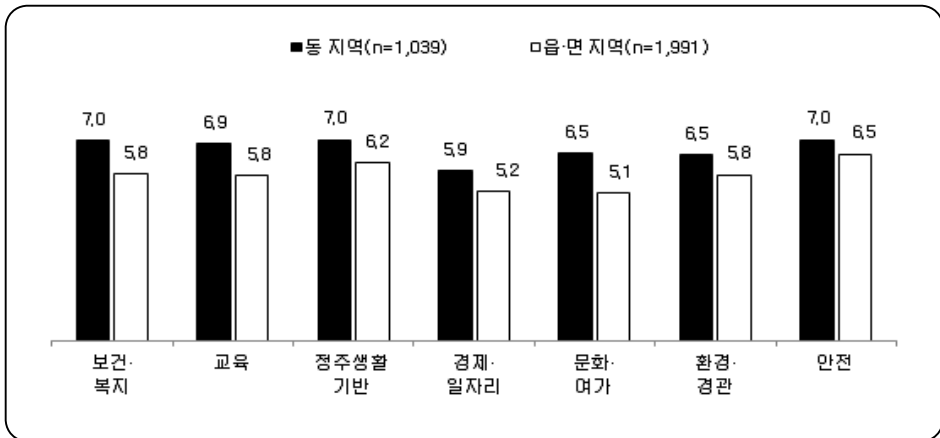
부문이 2017년 조사에서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두 번째로 컸다.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안전(6.5점)’이었고, 정주생활기반(6.2점)이 그 뒤를 이었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부문은 ‘문화·여가(5.1점)’이고,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평균 점수도 5.2점으로 전체 부문 평균 점수인 5.8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결과를 종합하면, 문화·여가 부문은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문이다. 보건·복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여건으로 꼽았지만,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2번째로 큰 부문이다.

〈그림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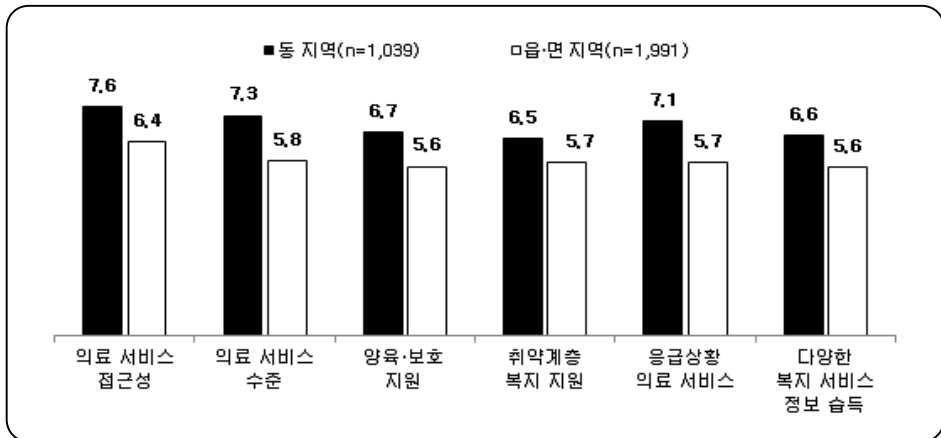
3.3. 7대 부문별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 결과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는 <그림 3-3>과 같다. 모든 세부 항목에서 모두 도시 주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 중 ‘의료 서비스 수준’의 도·농 차이가 1.5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의 차이가 1.4점으로 컸다.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 2017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문항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 습득’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5.6점으로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 중 가장 낮았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농어촌 주민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표 3-11>과 같이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모두 작년에 비해 올해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 ‘아이들의 양육·보호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 상승했다. ‘취약계층 복지 지원’의 도시 주민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농어촌 주민 만족도는 0.3점 하락하였다.

<그림 3-3>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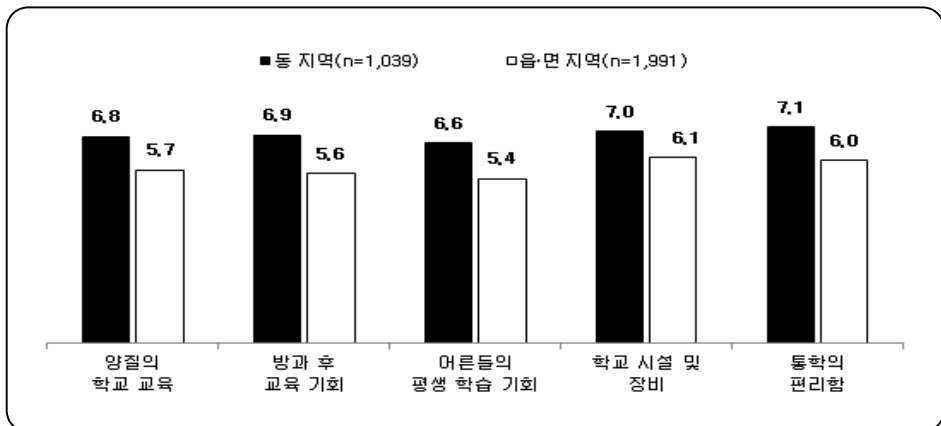
〈표 3-11〉 2016년, 2017년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8	7.6	6.4	6.4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7.4	7.3	5.9	5.8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6.6	6.7	5.5	5.6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6.4	6.5	6.0	5.7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7	7.1	6.0	5.7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017년 신규 문항)	-	6.6	-	5.6
전체	7.1	7.0	5.9	5.8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는 <그림 3-4>와 같다.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주민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방과 후 교육 기회’이다. 2017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학교 시설 및 장비’와 ‘통학의 편리함’이 교육 부문 세부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문항이다.

〈그림 3-4〉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0점 척도)



〈표 3-12〉 2016년, 2017년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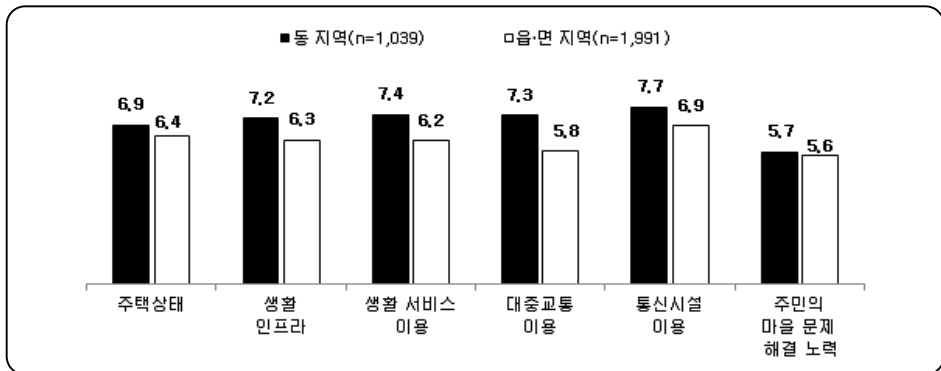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8	6.8	5.6	5.7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정규 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9	6.9	5.3	5.6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6.6	6.6	5.2	5.4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2017년 신규 문항)	-	7.0	-	6.1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2017년 신규 문항)	-	7.1	-	6.0
전체	6.8	6.9	5.4	5.8

작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도시 주민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변화가 없는 반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기존 3개의 세부 항목에서 상승했고,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도 0.4점 상승했다. 세부 항목 중 ‘방과 후 교육 기회’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고, 작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는 <그림 3-5>와 같다.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주민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이다. 2017년에 새롭게 추가된 세부 항목인 ‘주민의 마을 문제 해결 노력’은 6개의 세부 항목 중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림 3-5〉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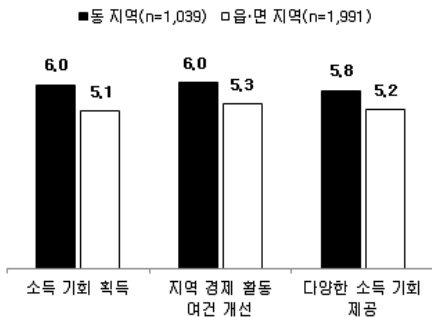
<표 3-13> 2016년, 2017년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6.8	6.9	6.4	6.4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7.3	7.2	6.1	6.3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이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7.5	7.4	6.0	6.2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7.6	7.3	5.8	5.8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7.8	7.7	6.7	6.9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7년 신규 문항)	-	5.7	-	5.6
전체	7.4	7.0	6.2	6.2

작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의 만족도는 ‘주택 상태’를 제외한 세부 항목 4개에서 하락했다.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는 5개의 세부 항목 모두 유지 또는 상승했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는 <그림 3-6>과 같다.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주민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소득 기회 획득’이다. 3개의 항목 중 ‘소득 기회 획득’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3-14>과 같이 3개의 세부 항목 모두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작년에 비해 0.3점 이상 상승했다.

<그림 3-6>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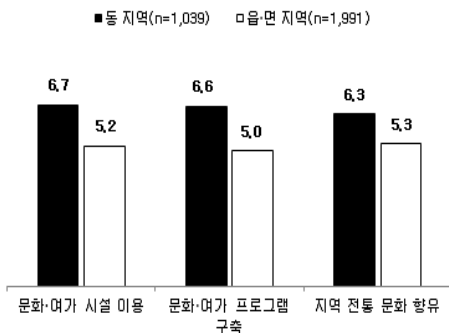


<표 3-14> 2016년, 2017년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16	'17	'16	'17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5.9	6.0	4.8	5.1
최근 1년 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5.8	6.0	5.0	5.3
농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5.4	5.8	4.8	5.2
전체	5.7	5.9	4.8	5.2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는 <그림 3-7>과 같다.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주민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3개 항목 중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고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이다. 2017년에 추가된 항목인 ‘지역 전통 문화 향유’는 3개의 세부 항목 중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문화·여가 시설 이용’,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작년에 비해 상승했다.

〈그림 3-7〉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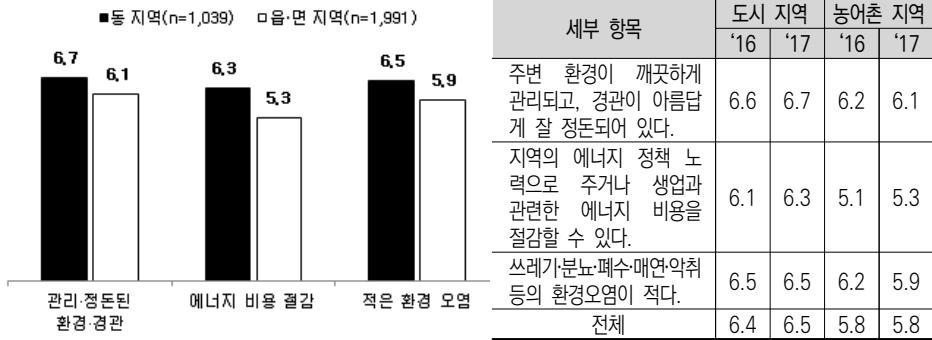
〈표 3-15〉 2016년, 2017년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16	'17	'16	'17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6	6.7	4.8	5.2
문화체육 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6.5	6.6	4.5	5.0
지역 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2017년 신규 문항)	-	6.3	-	5.3
전체	6.6	6.5	4.6	5.1

환경·경관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는 <그림 3-8>과 같다.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주민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다.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에서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컸고,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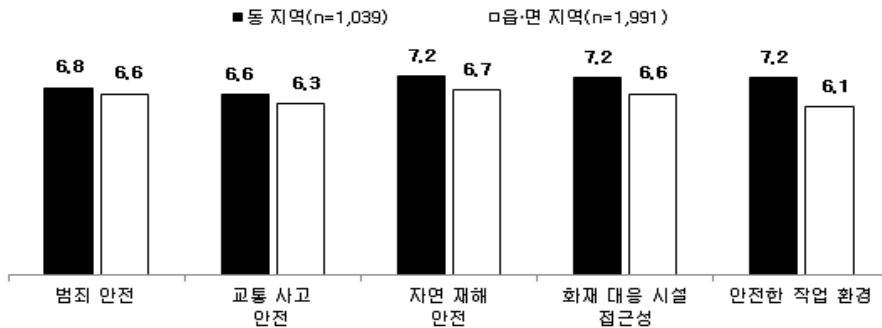
환경·경관 부문 3개 항목 모두에서 도시 주민의 만족도는 유지 또는 상승했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에너지 비용 절감’에서만 상승하고, 그 외 2개 항목에서 하락했다.

〈그림 3-8〉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0점 척) 〈표 3-16〉 2016년, 2017년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안전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는 <그림 3-9>와 같다. 모든 세부 항목에서 모두 도시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더 높다. 응답자 중 농업 종사자에게만 조사를 진행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컸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5개 세부 항목 중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3-9〉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0점 척도)



하지만 ‘안전한 작업 환경’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 점수는 작년에 비해 0.2점 증가했다. 도시 주민의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자연 재해 안전’ 항목 외의 4개 항목에서 유지 또는 상승했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화재 대응 시설 접근성’, ‘안전한 작업 환경’ 항목 외의 3개 항목에서 모두 하락하였다.

<표 3-17> 2016년, 2017년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8	6.8	6.7	6.6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6	6.6	6.4	6.3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3	7.2	7.0	6.7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7.1	7.2	6.4	6.6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n=동 지역: 652명/ 읍면 지역: 533)	6.6	7.2	5.9	6.1
전체	6.9	7.0	6.6	6.5

<표 3-18>과 같이 7대 부문별 세부 항목 31개의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6.5점 이상으로 높은 항목은 통신 시설 이용(6.9점), 자연 재해 안전(6.7점), 범죄 안전(6.6점), 화재 대응 시설 접근성(6.6점)이다. 만족도가 5.2점 이하로 낮은 항목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5.0점), 소득 기회 획득(5.1점), 문화·여가 시설 이용(5.2점), 다양한 소득 기회 제공(5.2점)이다.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1.5점 이상인 항목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1.6점), 대중교통 이용(1.6점), 문화·여가 시설 이용(1.5점), 의료 서비스 수준(1.5점)이다.

2016년과 2017년의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26개의 세부 항목을 살펴봤다.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만족도가 하락한 항목은 8개이고 만족도가 상승한 항목은 18개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평균 점수가 0.3점 이상 상승한 항목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0.5점), 문화·여가 시설 이용(0.4점), 소득 기

회 획득(0.4점), 지역 경제 활동 여건 개선(0.4점), 다양한 소득 기회 제공(0.4점)이다. 전년도에 비해 평균 점수가 0.2점 이상 하락한 항목은 적은 환경오염(0.3점),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0.3점), 자연 재해 안전(0.2점), 취약계층 복지 지원(0.2점)이다.

문화·여가 및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는 다른 부문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보다 낮았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이기도 하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하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개선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타 항목에 비해 낮고,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크다. 전년도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하락하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표 3-18〉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도시 지역 - 농어촌 지역)	농어촌 지역 증감 (‘17년 - ‘16년)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6.4	-1.2	0.1
	의료 서비스 수준	5.8	-1.5	-0.1
	양육·보호 지원	5.6	-1.1	0.1
	취약계층 복지 지원	5.7	-0.8	-0.2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	5.7	-1.4	-0.3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 습득	5.6	-1.0	-
	(평균)	5.8	-1.2	-0.1
교육	양질의 학교 교육	5.7	-1.1	0.1
	방과 후 교육 기회	5.6	-1.3	0.3
	어른들의 평생 학습 기회	5.4	-1.2	0.2
	학교 시설 및 장비	6.1	-0.9	-
	통학의 편리함	6.0	-1.1	-
	(평균)	5.8	-1.1	0.4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4	-0.4	0.1
	생활 인프라	6.3	-1.0	0.2
	생활 서비스 이용	6.2	-1.1	0.2
	대중교통 이용	5.8	-1.6	0.0
	통신 시설 이용	6.9	-0.8	0.2
	주민의 마을 문제 해결 노력	5.6	-0.2	-
(평균)	6.2	-0.8	0.0	
경제 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획득	5.1	-0.8	0.4
	지역 경제 활동 여건 개선	5.3	-0.7	0.4
	다양한 소득 기회 제공	5.2	-0.6	0.4
	(평균)	5.2	-0.7	0.4
문화 · 여가	문화여가 시설 이용	5.2	-1.5	0.4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5.0	-1.6	0.5
	지역 전통 문화 향유	5.3	-1.1	-
	(평균)	5.1	-1.4	0.5
환경 · 경관	관리·정돈된 환경경관	6.1	-0.6	-0.1
	에너지 비용 절감	5.3	-1.0	0.2
	적은 환경 오염	5.9	-0.6	-0.3
	(평균)	5.8	-0.7	0.0
안전	범죄 안전	6.6	-0.2	-0.1
	교통사고 안전	6.3	-0.3	-0.1
	자연재해 안전	6.7	-0.5	-0.2
	화재 대응 시설 접근성	6.6	-0.6	0.1
	안전한 작업 환경	6.1	-1.1	0.2
	(평균)	6.5	-0.5	-0.1

3.4.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와 종합 지수인 ‘주관적 삶의 질 지수’를 산출했다. 7대 부문별 지수인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는 각 부문의 세부 항목 점수를 평균한 값이다. 부문별로 3~6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된다. 종합 지수인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7대 부문의 만족도 점수를 종합해 나타낸 값으로,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들을 가중 평균⁹했다.

전체 세부 항목 평균 점수 5.8점을 기준으로 보면, 문화·여가 부문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삶의 질 부문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주생활 기반 부문과 안전 부문의 삶의 질 부문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구한 2017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6.3점이다. 전년도에 비해 0.7점 상승하여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여건이 향상되었다.

〈표 3-19〉 2012년~2017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구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분 지수							
		보간·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지역 사회
2012년 (5점 만점)	2.7점	2.8점	2.5점	3.3점	2.1점	2.2점	3.4점	-	2.8점
2013년 (5점 만점)	3.3점	3.6점	3.4점	3.0점	2.9점	2.5점	3.8점	-	3.5점
2014년 (10점 만점)	5.2점	5.7점	4.9점	5.3점	4.3점	3.1점	5.8점	6.5점	6.0점
2015년 (10점 만점)	5.6점	5.9점	5.5점	6.0점	4.8점	4.7점	5.9점	6.6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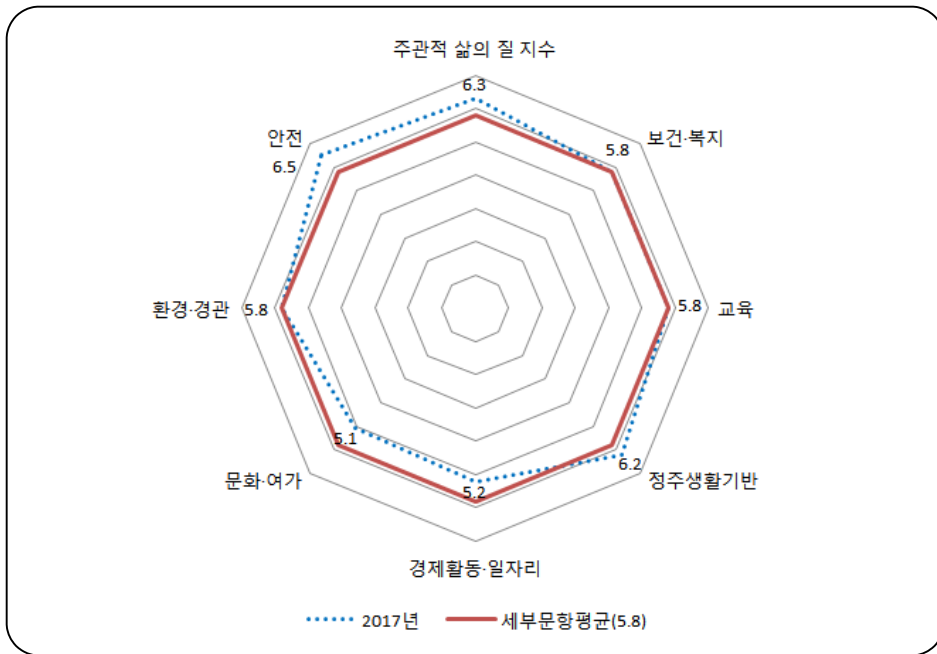
⁹ 가중치 값을 2017년도 조사의 ‘7대 부문 중요도 순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산출했다. 7대 부문 중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1순위는 1점, 순위가 없으면 0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이 각 7대 부문의 가중치 값이다.

36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분 지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지역 사회
2016년 (10점 만점)	5.6점	5.9점	5.4점	6.2점	4.8점	4.6점	5.8점	6.6점	-
2017년 (10점 만점)	6.3점	5.8점	5.8점	6.2점	5.2점	5.1점	5.8점	6.5점	-

주: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5점 척도(응답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 1~5점 부여)를 사용한 반면, 2014년~2017년에는 10점 척도(응답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 1~10점 부여)를 사용하였다.

〈그림 3-10〉 2017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4. 정주 여건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 및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의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와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 중 어떠한 정책 부문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 만족과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4.1. 정주 여건 만족도가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의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7대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농어촌 주민의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변수의 설정과 측정 도구는 <표 3-20>과 같다. 인구 통계적 특성인 성별, 연령대, 학력, 소득 등 총 4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만족도 세부 항목을 평균하여 산출한 7대 부문별 평균 만족도도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종속변수는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의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이다.

회귀분석에 앞서 분석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했다.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s) 값을 도출한 결과, 하한 값 1.056, 상한 값 4.28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확인했다.

〈표 3-20〉 변수 설정 및 측정 도구

구분	변수명	측정 방식
독립 변수	성별	남자 = 1, 여자 = 2
	연령대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학력	① 무학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원 이상 ②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소득	① 1,000만 원 미만 ③ 2,000만 원~2,999만 원 ⑤ 4,000만 원 이상 ② 1,000만 원~1,999만 원 ④ 3,000만 원~3,999만 원
	보건·복지 만족도	10점 척도(6개 세부 항목 평균)
	교육 만족도	10점 척도(5개 세부 항목 평균)
	정주생활기반 만족도	10점 척도(5개 세부 항목 평균)
	경제활동·일자리 만족도	10점 척도(3개 세부 항목 평균)
	문화·여가 만족도	10점 척도(3개 세부 항목 평균)
	환경·경관 만족도	10점 척도(3개 세부 항목 평균)
종속 변수	안전 만족도	10점 척도(5개 세부 항목 평균)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10점 척도
	이주 의향	이주 의향이 있다 = 1, 이주 의향이 없다 = 0

분석 결과는 <표 3-21>과 같다. 유의수준 5% 하에서 농어촌 주민의 거주 지역에서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보건·복지 만족도’, ‘정주생활기반 만족도’, ‘환경·경관 만족도’, ‘안전 만족도’이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이 높을수록 농어촌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고, 인구 통계적 변수 중에서 성별, 연령,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어촌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만족도 변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조사’와 일관된 결과다. 농어촌 주민은 중요한 정책 부문으로 보건·복지 부문을 1순위, 정주생활기반을 3순위로 꼽았다. 즉, 의료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주택 상태, 도시가스 등의 생활 인프라, 목욕탕 등의 생활 서비스

등의 정주생활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환경·경관 부문은 중요도 조사에서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문이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서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즉, 농어촌 지역의 자연 경관, 쓰레기 및 분뇨 등의 환경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3-21〉 정주 생활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β	t	Exp(β)
상수항	.843	2.307	.021
성별	-.010	-.114	.909
연령대	.070	1.599	.110
학력	.061	.962	.336
소득	.063**	1.986	.047
보건·복지 만족도	.228***	5.842	.000
교육 만족도	-.046	-1.108	.268
정주생활기반 만족도	.279***	5.637	.000
경제활동·일자리 만족도	.056	1.634	.102
문화·여가 만족도	-.009	-.286	.775
환경·경관 만족도	.166***	4.328	.000
안전 만족도	.098**	2.538	.011
R^2	.312	F	81.403 (.000)

** p<.05, *** p<.01

4.2. 정주 여건 만족도가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7대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분석을 실시했다.

변수의 설정과 측정도구는 <표 3-20>과 같다. 독립변수는 앞선 회귀분석과 동일하다. 종속변수는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의 설문 문항에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한 명목변수이다.

분석에 앞서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농어촌 주민의 59.9%(1,192명)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농어촌 주민에게 이주 희망 지역과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3-22>과 같다.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시로 이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주하고 싶은 이유로 ‘교통의 불편함’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그 외에 응답률이 10% 이상인 답변은 소득 기회 문제, 자녀 교육, 직장 이동, 문화·여가 여건 등이었다.

<표 3-22> 농어촌 주민의 이주 희망 지역 및 이유

(n= 1,192/ 단위: %)

이주 희망 지역	응답 비율	이주 희망 이유	응답 비율
도시로	62.3	교통이 불편하다	13.9
현재 사군 안에서 읍면 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	20.7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 기회를 찾기 위해	11.8
다른 사군의 농어촌으로	13.5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11.6
현재 사군 안에서 다른 농어촌 마을로	3.4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11.4
합계	100	체육 활동, 문화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10.8

‘이주 의향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분석 결과는 <표 3-23>과 같다.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는 앞선 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과 동일하다. 분석 결과, 5% 유의수준 하에서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학력’, ‘소득’, ‘환경·경관 만족도’이다. 즉,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에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보다 인구 통계적 특성의 변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표 3-23〉 이주 의향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구분	β	Wals	Exp(β)
상수항	1.409***	.892	.001
성별	-.099	53.219	.345
연령대	-.370***	37.180	.000
학력	.460***	30.496	.000
소득	.203***	1.605	.000
보건·복지 만족도	-.059	.171	.205
교육 만족도	-.021	.510	.679
정주생활기반 만족도	-.043	.963	.475
경제활동·일자리 만족도	-.040	.328	.327
문화·여가 만족도	-.021	26.701	.567
환경·경관 만족도	-.240***	3.851	.000
안전 만족도	.091	11.064	.050
Hosmer-Lemeshow검정	8.61(.376)		
분류 정확도	70.4		

** p<.05, *** p<.01

연령이 낮을수록 이주 의향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 의향이 높았다. 소득 역시 높을수록 이주 의향이 높았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은 주민일수록 농어촌을 떠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다.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 변수 중에선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다.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 의향이 낮았다. 즉, 농어촌 지역의 경관과 환경이 쾌적하여 이에 대한 만족감이 클수록 농어촌에 지속해서 머물려는 의향이 높았다. 환경·경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부문에서 최하위였으나,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와 이주 의향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012년부터 진행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정책 부문별 평균 만족도¹⁰와 부문별 세부 항목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지난 6년 동안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고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다. 읍 지역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변화 추이도 비교했다.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공간 특성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1. 기존의 정주 만족도 조사 과정

2012년부터 진행된 정주 만족도 조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2년에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시범 실시했다. 당시에 10개의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했다. 마을의 입지 및 규모와 읍·면별 배분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의 마을을 선정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정주체계를 고려해 중심지 마을과

¹⁰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7대 정책 부문에 ‘지역사회’ 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개의 세부 문항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부문을 2012년부터 계속 조사했다.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부문을 포함하여, 8대 부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배후 마을을 고르게 포함시켰다. 마을당 최소 20가구 이상씩, 총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013년도 조사는 2012년도의 시범 조사를 근간으로 20개의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했다. 2012년도에 실시한 10개의 마을에, 10개의 마을을 추가하였다. 마을 당 20가구 내외씩 조사해 총 6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14년엔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를 시범 실시했다. 2013년까지 이루어진 마을 패널 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20개 마을의 주민이 농어촌 주민으로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과 마을 주민을 전수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응답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20개 행정리 마을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역별 층화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가 구성해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를 시범 실시하였다. 농어촌 주민 489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도시 지역 주민 610명도 추가로 조사하였다. 도시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선정했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만을 도시로 간주하고, 광역시 내 5개 군(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웅진군, 울주군)을 농어촌 지역에 포함하였다.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인구 20만 명 이하의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 지역은 농어촌으로 간주했다.

2014년 시범 조사를 토대로 2015년부터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동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2015년도와 조사는 지역별로 층화 추출하여 도시 지역(동 지역) 거주 주민 1,269명,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거주 주민 1,77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16년도는 2015년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고, 도시 지역(동 지역) 거주 주민 950명,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거주 주민 1,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17년도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고, 도시 지역(동 지역) 거주 주민 1,039명,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거주 주민 1,99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 분석 개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중, 4년 이상 축적된 자료가 있는 설문 문항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진행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4개 문항,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평균 만족도¹¹, 22개 세부 항목별 만족도 등 크게 3가지 조사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했다¹².

연도별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다원배치분산분석(Multi-way ANOVA)을 실시했다. 연도별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에서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 추이를 확인했다. 각 연도마다 측정 척도에 차이가 있어 모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분석했다. 연도별 평균값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평균값이다¹³. 각 연도별 표본 수는 <표4-1>과 같다¹⁴.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항목이 있으면,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몇 가지 문항을 추가하고 조사했다¹⁵.

11 시계열 분석에 활용된 22개 세부 항목을 활용해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도출했다. 2017년에 새롭게 추가된 세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3장에서 제시한 2017년도 정책 부문별 평균 만족도와 시계열 분석에서 제시하는 수치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12 시계열 분석에 활용한 자세한 설문 문항은 <부록 6>에 제시했다.

13 각 연도별 측정 척도와 100점 만점 환산 방식은 <부록 6>에 제시했다.

14 각 설문 문항마다 무응답자의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여 같은 연도의 조사 결과지만 설문 문항마다 표본 수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각 항목의 시계열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부록 7>, <부록 8>에 제시했다.

15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미리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변화 추이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추가적인 설문 문항을 작성했다. 2017년 정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문항을 함께 조사했다.

〈표 4-1〉 시계열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

연도	농어촌 주민 표본 수	읍 지역 주민 표본 수	면 지역 주민 표본 수
2012년	340	-	-
2013년	679	-	-
2014년	1,168	156	295
2015년	1,774	765	950
2016년	1,950	918	994
2017년	1,991	1,129	805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선 농어촌 지역의 특정 마을을 지정하여 마을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부터 전국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층화 추출방식을 활용해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2012년과 2013년의 표본 수가 그 이후의 조사보다 적다. 분석 과정에서 2012년, 2013년의 결과와, 그 이후의 결과 흐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항목¹⁶이 있다. 2012년, 2013년 마을 패널 조사가 진행된 해당 마을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읍 지역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비교 분석에는 표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연도의 자료에서 거주 지역이 읍인지 면인지 구분할 수 없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연도별로 각 항목마다 읍·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이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했다. 각 연도별 읍 지역과 면 지역 표본 수는 <표 4-1>과 같다.

16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세부 항목으로 ‘생활 인프라’, ‘관리 정돈된 환경·경관’, ‘적은 환경 오염’, ‘마을 문제 해결 노력’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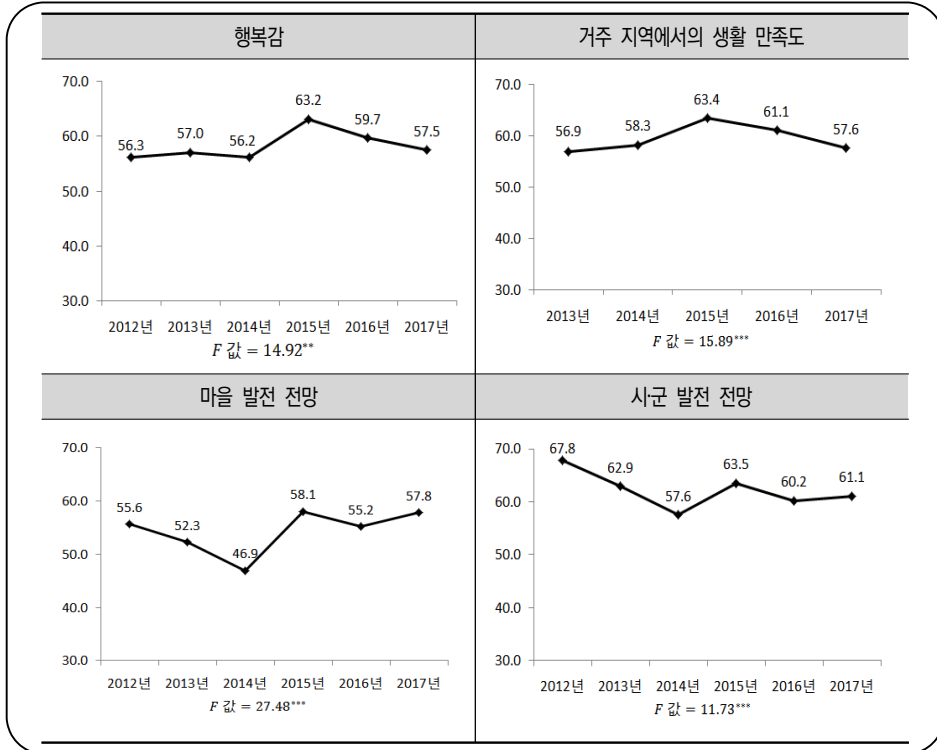
3.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시계열 분석

3.1.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시계열 분석

<그림 4-1>과 같이,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는 4개 설문 문항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4개 문항 모두 연도별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행복감’과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반면,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은 2014년을 기점으로 상승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행복감이나 생활 만족도는 하락하고 있지만, 거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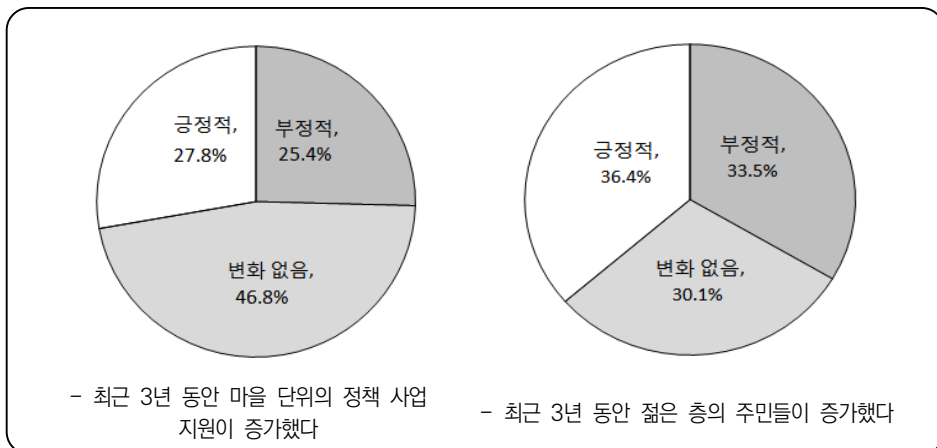
특히 ‘마을 발전 전망’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10점 이상 상승했다.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추가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우리 마을에 최근 3년 동안 마을 단위의 정책 사업 지원이 많았다’와 ‘우리 마을에 최근 3년 동안 젊은 층의 주민들이 늘어났다’의 설문 문항을 11점 척도로 조사했다. 1~5점까지 부정적인 응답, 6점은 변화 없음, 7~11점은 긍정적인 응답으로 설정하여 설문에 답하게 했다. 조사 결과, ‘마을 단위의 정책 사업 지원 증가’에 ‘변화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6.8%로 가장 많았다.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27.8%,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25.4%로 나타났다. ‘젊은층 인구 증가’에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많았다.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33.5%, 변화 없다고 답한 비율이 30.1%였다. 젊은 세대의 유입이 지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림 4-1〉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시계열 분석



주) ** p < .05, *** p < .01

〈그림 4-2〉 마을 발전 전망 관련 추가 설문 조사 결과



3.2. 부문별 정주 여건 만족도 시계열 분석

정책 부문별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정책 부문별 평균 만족도는 해당 부문의 세부 항목의 만족도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부문을 포함한 8개의 정책 부문 모두 연도별 평균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 6개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추세다. 환경·경관, 지역사회 등 2개의 부문에선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추세다.

큰 폭으로 만족도가 상승한 정책 부문은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정주생활기반이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만족도는 2012년 26.6점에서 2017년 46.8점으로 약 20점 가량 상승했다.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는 평균 만족도가 최저였던 2013년 28.3점에서 2017년 45.2점으로 약 17점 가량 상승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기회를 향상하고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다양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실제로 그 성과가 만족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큰 폭의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두 부문은 여전히 만족도 점수가 50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8개의 정책 부문 중 최하점이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 및 문화 향유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만족도는 최저였던 2014년 48.3점에 비해 2017년 59.0점으로 약 11점 가량 상승했다. 주택 상태, 생활 서비스 여건 등이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17년에 59점으로 나타나 만족도 평균 점수가 두 번째로 높았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정책적 성과를 보이는 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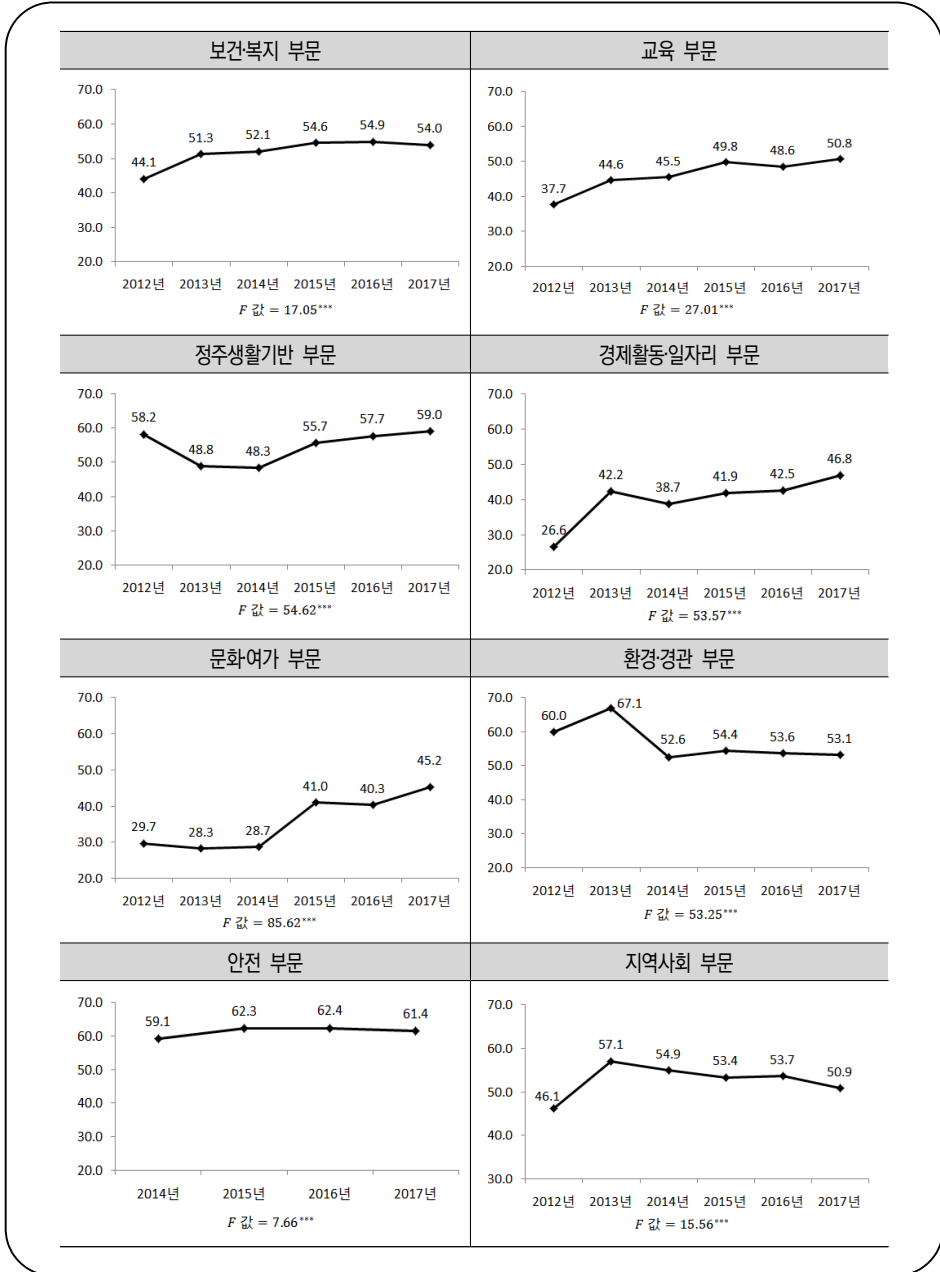
보건·복지, 교육 부문의 만족도는 상승하는 추세지만, 2015년 이후 상승세가 정체되었다. 두 부문 모두 만족도가 최저였던 시점에 비해 10점 가까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후 첫 해에만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상승했고, 그 이후 오히려 소폭 하락하기도

했다. 보건·복지 여건과 교육 여건은 삶을 영유하는 데 기초적인 요소다. 농어촌 지역의 해당 여건이 계속 좋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경·경관, 지역사회 부문의 만족도는 하락했고, 특히 지역사회 부문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7년 조사에서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의 정주 생활 만족도와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부문의 만족도는 최고점이었던 2013년 57.1점에 비해 2017년 50.9점까지 하락하였다. 농어촌 지역사회의 특성이던 견고한 공동체성이 점차 와해된 결과다.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결속력과 공동체성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복원하려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안전 부문의 조사는 2014년부터 이루어졌다. 매년 조사에서 60점 이상의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받았다. 즉, 안전 부문은 농어촌 주민이 가장 만족하는 정주 여건이다.

〈그림 4-3〉 7대 부문별 평균 만족도 시계열 분석 결과



주)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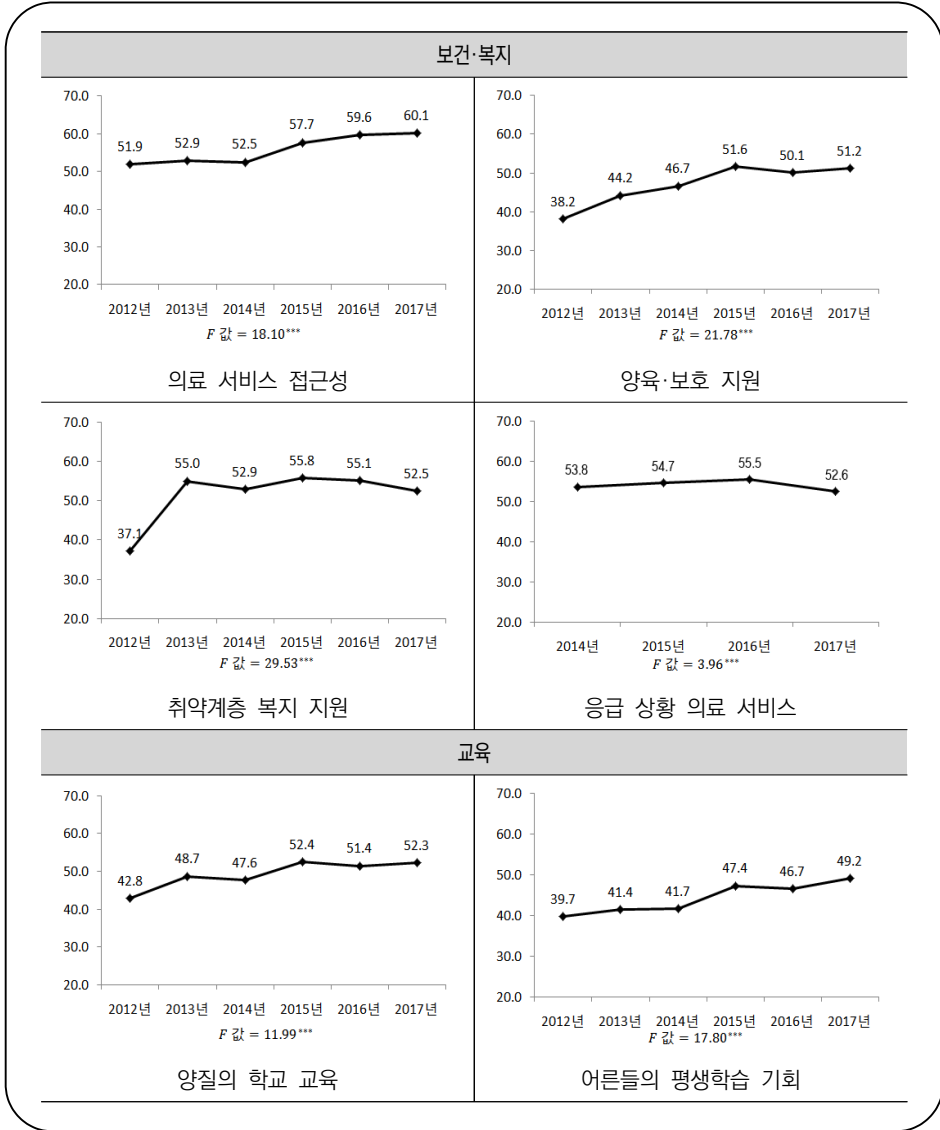
3.3. 세부 항목별 만족도 시계열 분석

세부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연도별 만족도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22개 세부 항목 중 ‘범죄 안전’ 항목을 제외한 총 21개 세부 항목에서 연도별 만족도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보건·복지 부문 4개 세부 항목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계속 상승했고, 2017년도에 60점까지 상승했다.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고 있다. 반면, ‘양육 및 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는 2015년부터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복지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뚜렷하게 하락했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 사업 중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여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다문화 가족 농업 교육 등이 있다. 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교육 부문의 2개 세부 항목인 ‘양질의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모두 상승하던 중 2015년부터 정체되거나 하락하였다. 특히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4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사업 중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이다. 각 지역에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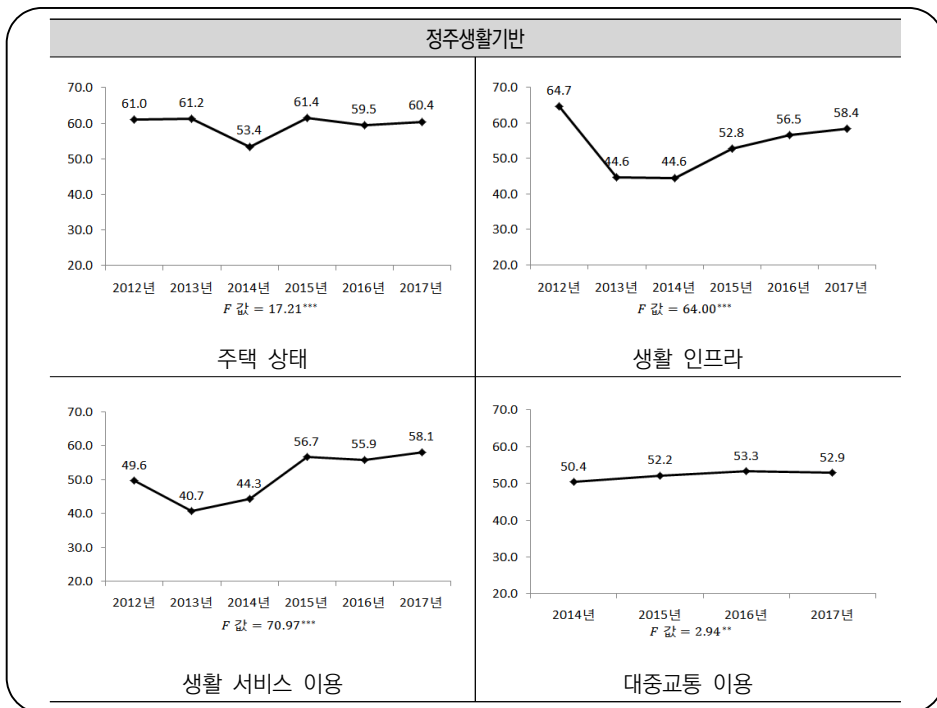
〈그림 4-4〉 보건복지 부문, 교육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주) ** p < .05, *** p < .01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4개 세부 항목의 시계열 분석 결과는 <그림 4-5>와 같다. ‘주택 상태’ 만족도는 2012년부터 계속 60점 가까이 유지되었다.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항목이다.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2017년에 58점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조사한 ‘대중교통 이용’ 항목의 만족도는 50점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17년엔 오히려 하락했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사업에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농어촌 교통모델 발굴 사업, 교통서비스 강화 사업, 내향여객선 운임보조, 국고여객선 건주 사업 등이 있다.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이다. 정책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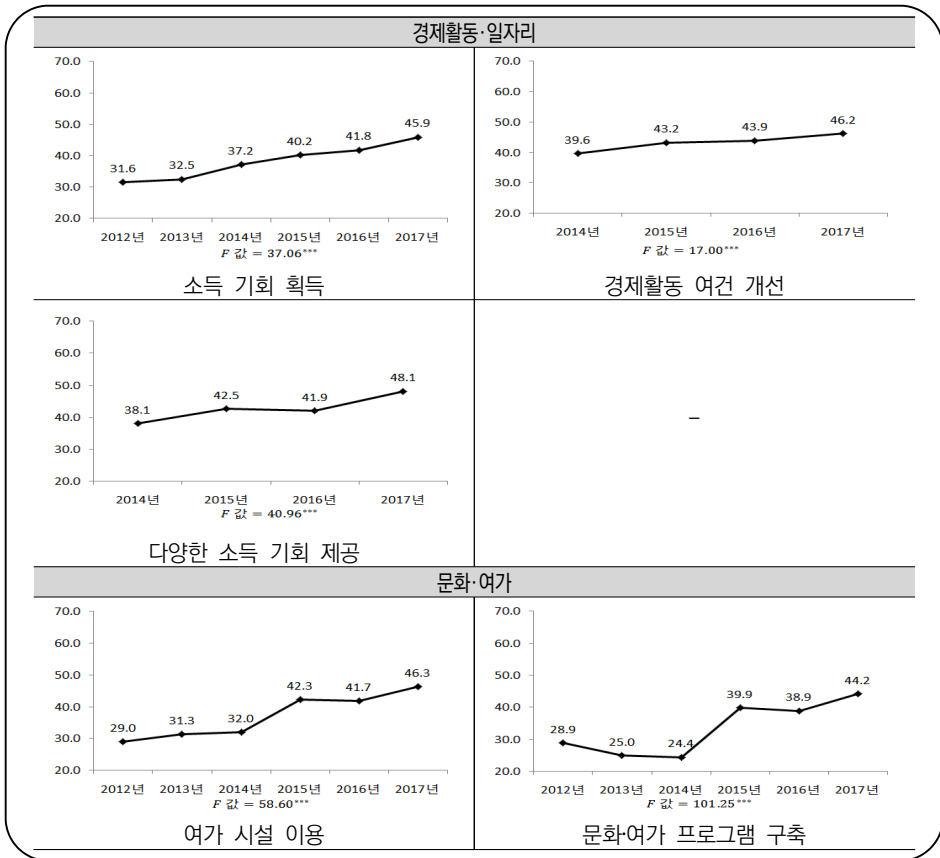
<그림 4-5>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주) ** p < .05, *** p < .01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3개 항목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최저점 30점대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에 40점 후반까지 상승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소득원을 다각화하려는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 추진의 결과가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여전히 만족도가 50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 여건은 다른 여건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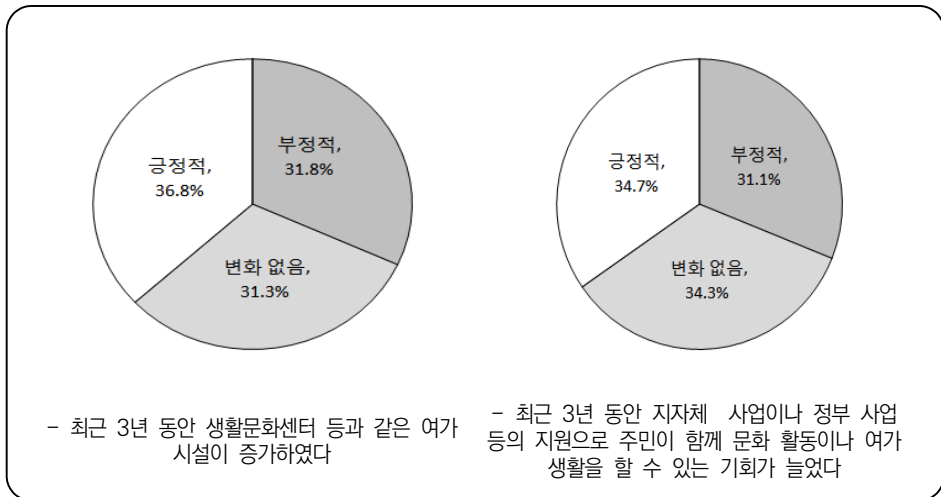
〈그림 4-6〉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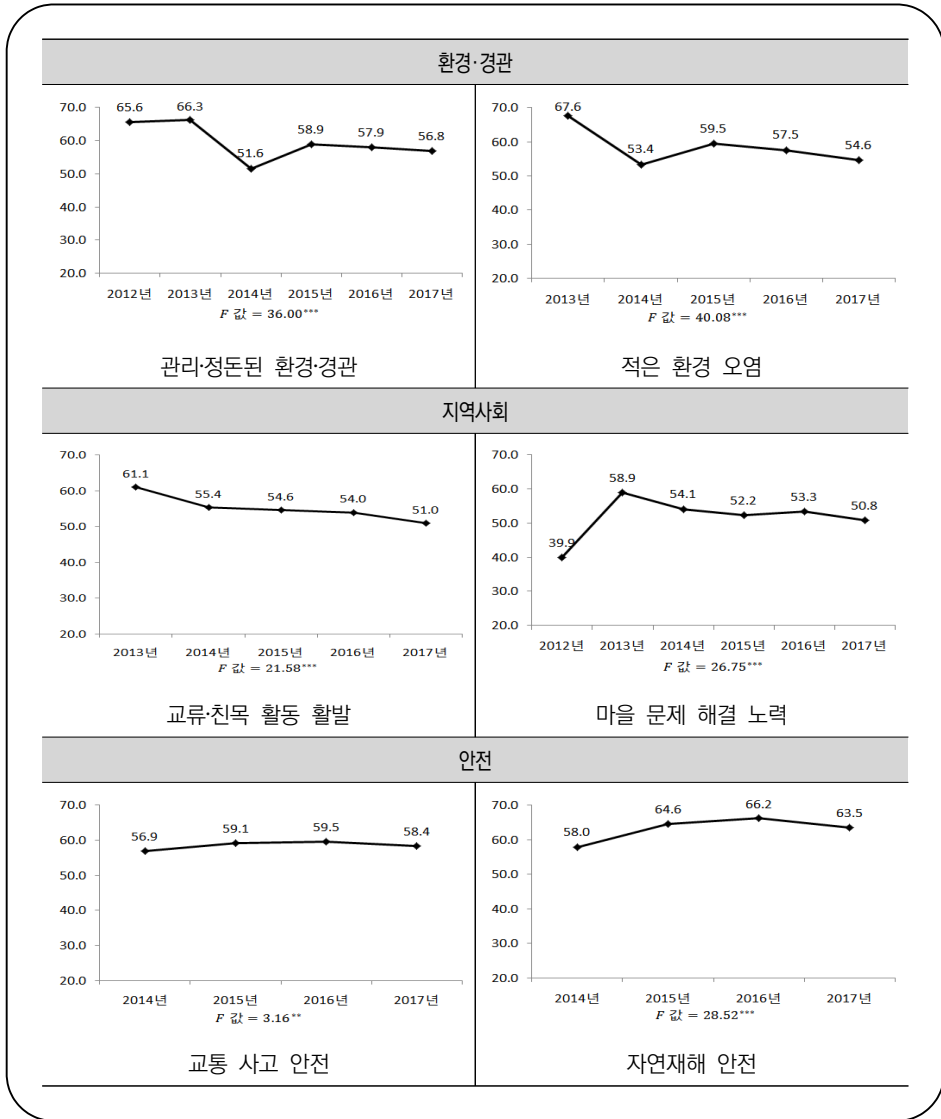
주) ** p < .05, *** p < .01

문화·여가 부문 2개 세부 항목의 만족도 역시, 최저점 20점대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7년에 40점 중반까지 상승했다. 특히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실시된 2015년을 기점으로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원인을 확인려고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 동안 거주 지역에 여가 시설이 증가했는지 묻는 설문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36.8%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동안 정책 지원으로 주민이 함께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는지를 묻는 문항도,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34.7%로 가장 많았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된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등의 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항목의 만족도는 여전히 22개 세부 항목 중 가장 낮다. 농어촌 주민이 가진 문화·여가 향유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림 4-7〉 문화여가 부문 관련 추가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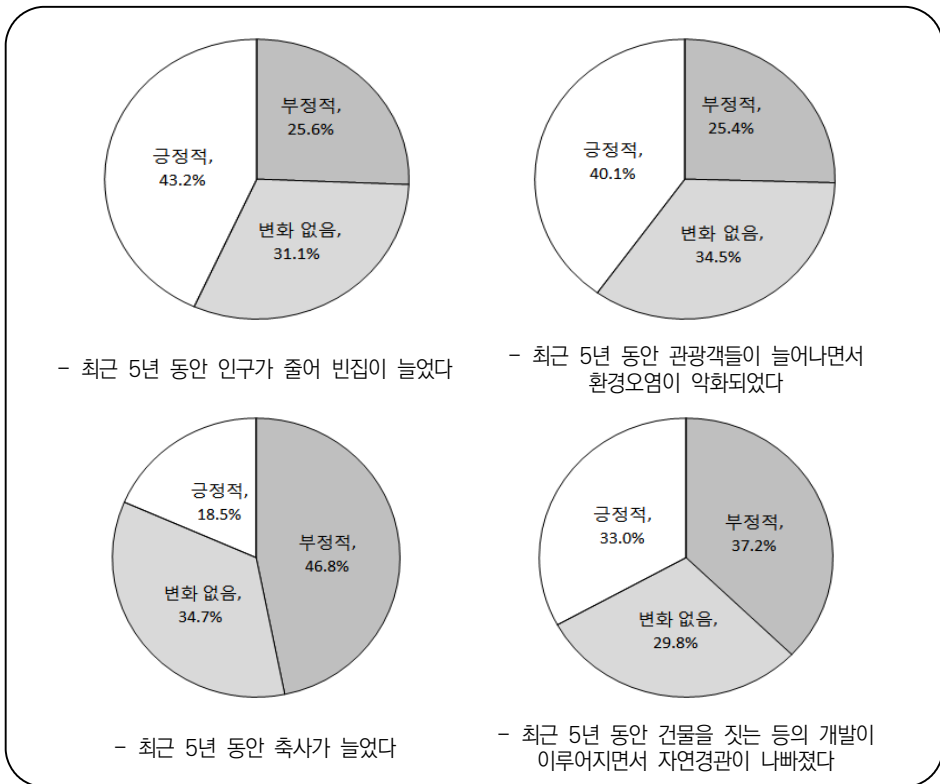
〈그림 4-8〉 환경경관 부문, 지역사회 부문, 안전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주) ** p < .05, *** p < .01

환경·경관 부문의 2개 세부 항목의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적은 환경오염’ 만족도가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 동안 관광객 증가로 환경오염이 심해졌는지 묻는 질문에 40.1%가 그렇다고 답했다. 농어촌 지역에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환경과 경관이 나빠진 이유가 빈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5년 사이에 빈집이 많아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43.2%로, 폐허가 된 빈집이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과 ‘축사 증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았다.

〈그림 4-9〉 환경·경관 부문 관련 추가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 부문의 2개 세부 항목의 만족도는 모두 하락하고 있다. 60점에 가까운 만족도에서 2017년에 50점으로 하락하였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련 정책 사업엔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6개 정책 사업¹⁷이 있다¹⁸. 하지만 해당 사업은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증진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향상하려는 것보다 지역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안전 부문의 ‘교통 사고 안전’, ‘자연재해 안전’ 모두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유지했다. 특히 ‘자연재해 안전’ 항목이 매년 60점 이상의 만족도 점수를 받고 있다.

세부 항목별 시계열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연도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21개 세부 항목 중 13개 항목의 만족도는 점차 상승했다. 만족도가 상승하던 중 하락하거나 다른 항목에 비해 상승 폭이 적은 항목은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 ‘주택상태’, ‘대중교통 이용’ 등 3개다. 만족도가 하락한 세부 항목은 ‘취약계층 복지 지원’, ‘관리·정돈된 환경·경관’, ‘적은 환경 오염’, ‘교류·친목 활동 활발’, ‘마을 문제 해결 노력’ 등 5개다.

17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정책 과제를 수행하려고 주민 주도 지역 개발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 단계별 개발, 귀농/어·귀(산)촌 활성화 지원, 산촌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등 총 6개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8 2017년 조사에서 세부 항목 중 ‘마을 문제 해결 노력’을 정주생활기반 부문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해당 세부 항목을 지역사회 부문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4. 읍 지역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차이 분석

4.1. 읍·면 지역 주민의 정책 부문별 정주 만족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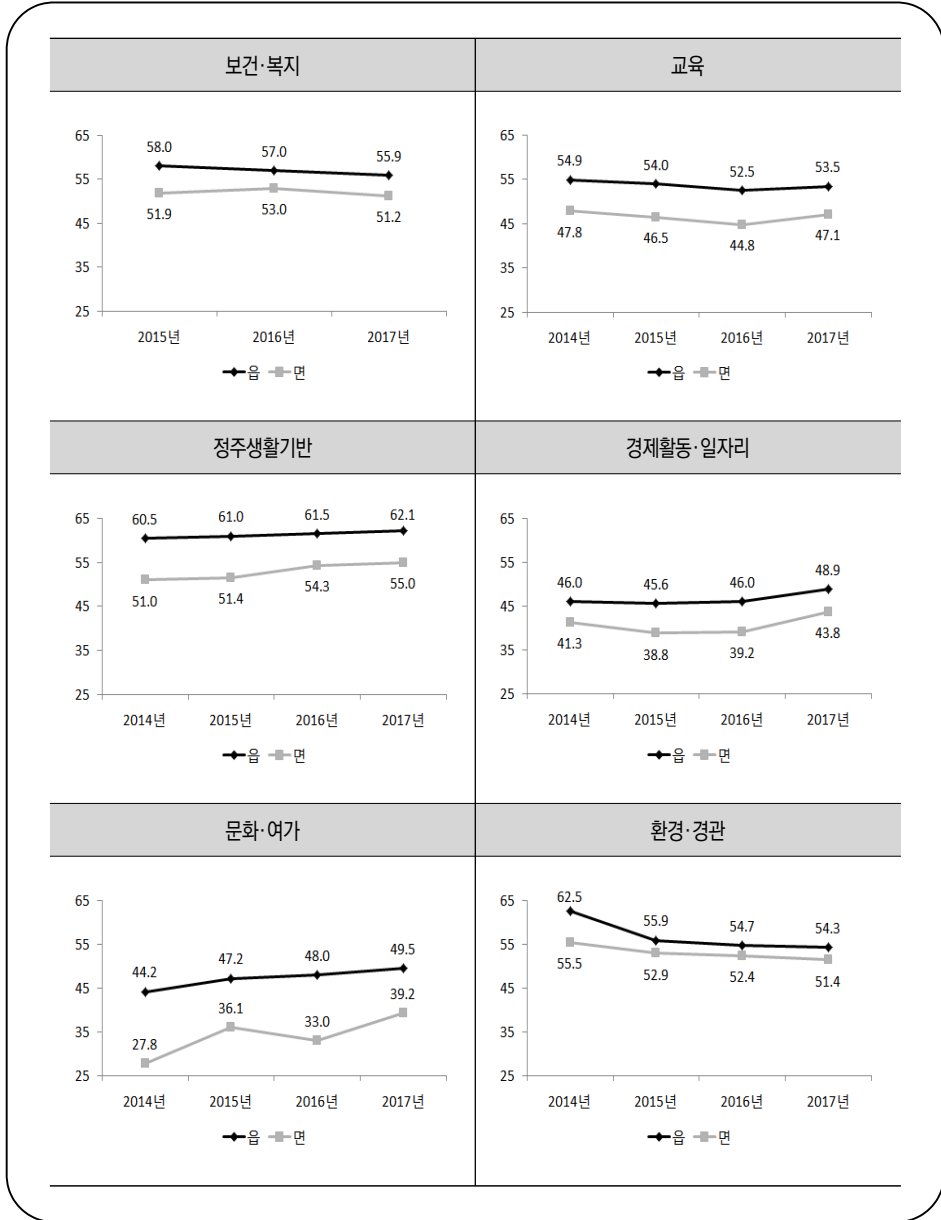
농어촌 지역 안에서도 읍 지역과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매년 읍·면 지역 주민 간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5% 유의수준)가 있는 정책 부문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6개다. 보건·복지 부문의 만족도는 2015년부터 읍·면 지역 주민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전 부문과 지역사회 부문의 만족도는 읍·면 지역 주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¹⁹.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6개의 정책 모든 부문에서 읍 지역 주민보다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을 제외한 5개 정책 부문에선 읍·면 지역 주민 만족도의 격차가 감소했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5년 이후부터 계속 5점 이상 차이가 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읍·면 지역 주민 만족도의 격차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문은 문화·여가이다. 그럼에도 문화·여가 부문은 여전히 읍·면 지역 주민 만족도의 차이 폭이 가장 크다. 2017년에도 10점 가까이 차이가 났다.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와 배후지 간에 문화 여건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지에 여가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 교육 부문과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만족도도 읍·면 지역 주민 사이에 매년 최소 6점 이상 차이가 났다.

¹⁹ 정책 부문별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보여주는 F값과 각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부록 9>, <부록 10>에 제시하였다.

〈그림 4-10〉 읍 지역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정책 부문별 만족도 변화 추이



4.2. 읍·면 지역 주민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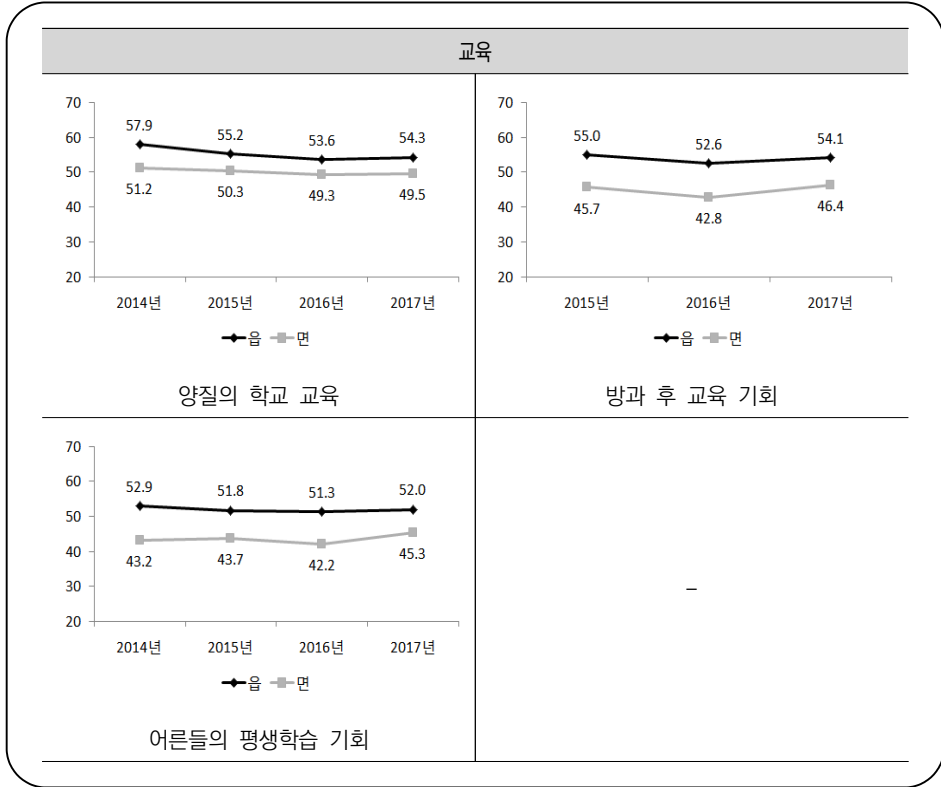
각 부문의 세부 항목별로 읍·면 지역 주민 간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했다. 22개의 세부 항목 중 16개의 세부 항목에서 매년 읍·면 지역 주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만족도 차이가 있었다. 16개의 세부 항목마다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림 4-11〉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



보건·복지 부문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매년 읍 지역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약 5점 이상이였다. 특히 가장 격차가 큰 항목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다. 대부분의 의료 시설이 읍 지역에 집중되어, 면 지역 주민이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개 세부 항목에서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양육·보호 지원’이다. 2015년부터 계속 40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12>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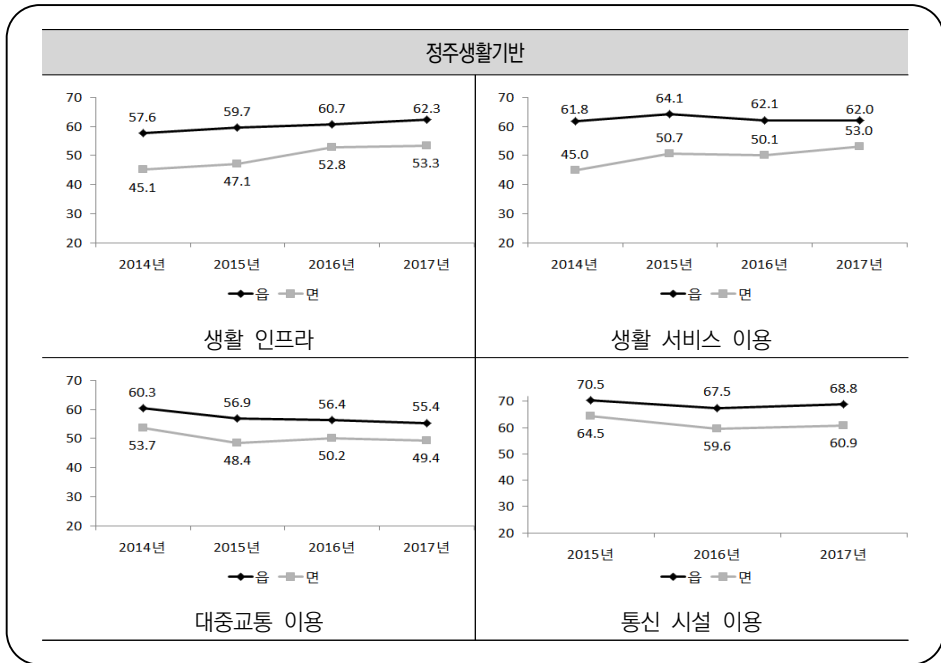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는 <그림 4-12>와 같다. ‘양질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는 매년 약 5점 정도였다. ‘방과 후 교육 기회’,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는 매년 약 10점 정도 차이가 났다. 이 두 항목에 대한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매년 4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경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이용’ 항목에 대한 읍·면 지역 주민 만족도의 격차가 매년 약 10점 정도로,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다. 읍 지역 주민의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생활 인프라와 목욕탕, 미용실 등의 생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60점 이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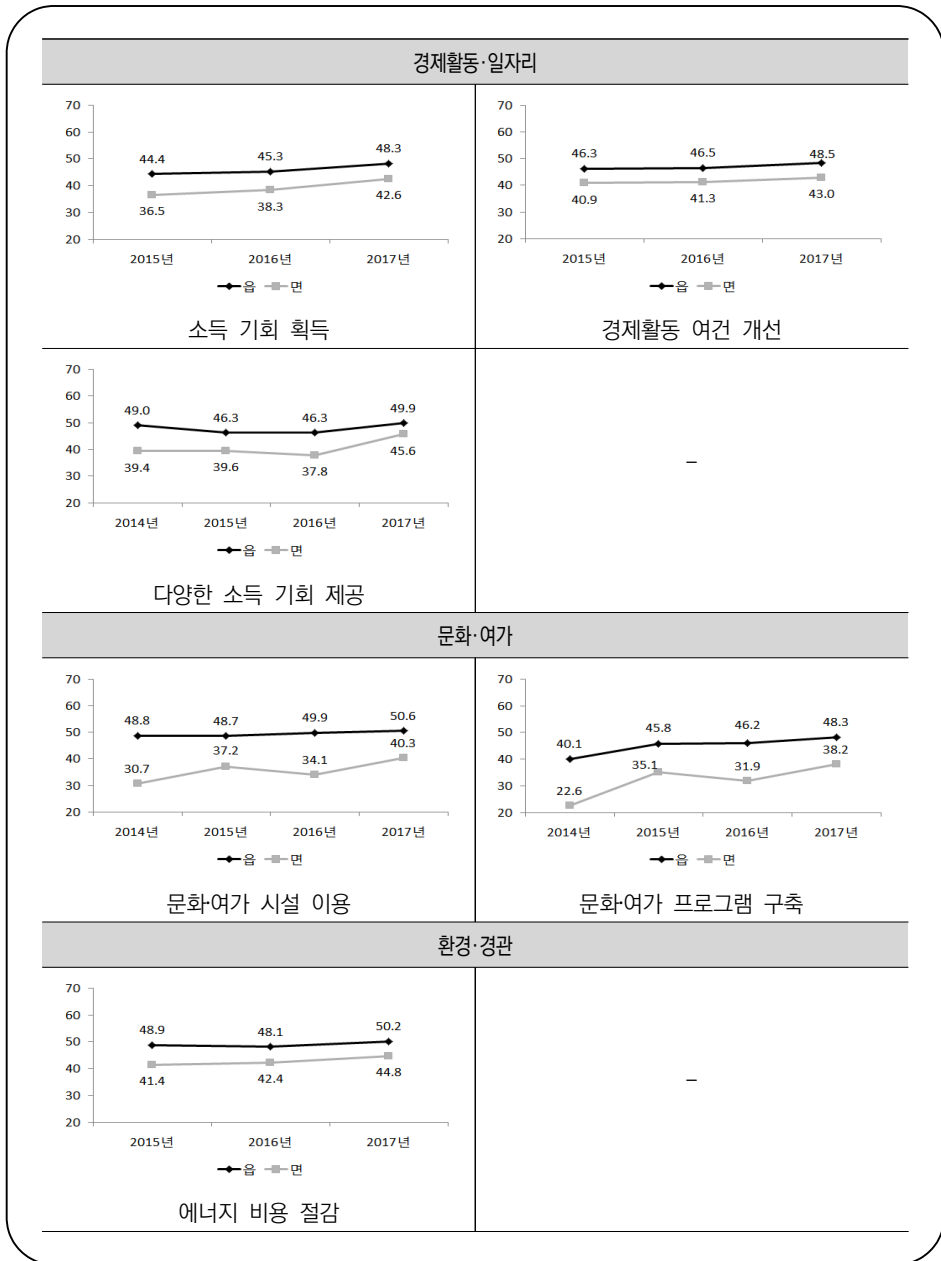
초반대로, 타 부문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모두 하락했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40점대 까지 하락했다. 면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4-13〉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5점 이상이였다.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30점대 후반에서 40점대 초반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소득 기회 획득’이다. 문화·여가 부문의 2개 세부 항목의 읍·면 지역 주민 만족도 격차는 약 10점 이상이다.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2016년까지 30점대에 머물다가 2017년에 처음으로 40점대에 돌입했다. 면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4-1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화여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



세부 항목별로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매년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약 10점 이상인 항목은 ‘방과 후 교육 기회’,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이용’, ‘문화·여가 시설 이용’,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등 6개이다.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매년 40점대 이하인 항목은 ‘양육·보호 지원’, ‘방과 후 교육 기회’,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소득 기회 획득’, ‘경제활동 여건 개선’, ‘다양한 소득 기회 제공’, ‘문화·여가 시설 이용’,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에너지 비용 절감’ 등 9개이다.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하락한 항목은 ‘양질의 학교 교육’, ‘대중교통 이용’, ‘통신시설 이용’ 등 3개이다.

1. 주요 분석 결과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는 주민이 체감하는 농어촌의 정주 여건 수준을 파악하려고 2012년부터 진행한 조사 연구이다. 이 보고서에선 2017년에 조사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했고, 2012년부터 축적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인 ‘나는 지금 행복하다’의 조사 결과,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모두 작년에 비해 약 0.2점 하락했다. 행복감 평균 점수는 도시와 농어촌 주민 모두 6.2점으로 동일하다. 농어촌 주민 응답자 중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작년에 비해 5% 가량 하락했고, 2015년부터 2년 연속 하락했다.

OECD의 삶의 질 지표(BLI)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국민의 포괄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주관적 웰빙’의 5개 문항을 함께 조사했다. ‘어제 행복 정도’, ‘일의 가치’의 문항에 대해선 도시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답했고, ‘어제의 근심 또는 걱정’, ‘어제 우울 정도’의 문항에 대해선 농어촌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답했다. 5개 문항을 종합한 주관적 웰빙 점수는 도시 주민 5.4점, 농어촌 주민 5.5점으로 나타나,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7대 정책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건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 여건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경제활동·일자리, 정주생활기반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작년 조사에서 안전 부문이 중요도 순위 3위였으나, 올해 조사에서 정주생활기반 부문이 3위, 안전 부문이 4위로 조사되었다.

7대 정책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문화·여가이다. 보건·복지 부문과 교육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안전, 정주생활기반 순이었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부문은 문화·여가, 경제활동·일자리 순이었다.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해 도출한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6.3점으로, 작년에 비해 0.7점 향상되었다.

7대 정책 부문별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통신시설’, ‘자연재해 안전’, ‘범죄 안전’, ‘화재 대응 시설 접근성’이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문화·여가 시설 이용’, ‘다양한 소득 기회 제공’, ‘소득 기회 획득’이다.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대중교통 이용’, ‘문화·여가 시설 이용’, ‘의료 서비스 수준’이다.

인구 통계적 특성과 부문별 정주 여건 만족도가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와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건·복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생활기반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경·경관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어촌 주민의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경관 만족도가 낮을수록 농어촌 주민의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높았다.

그동안의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발전 전망은 상승했고, 행복감과 생활 만족도는 하락했다. 정책 부문별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확인했다.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만족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보건·복지, 교육 부문의 만족도는 상승하는 추세지만 2015년부터 정체되었다. 환경·경관, 지역사회 부문의 만족도는 하락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13개 항목의 만족도가 상

승했다. 만족도 점수가 정체된 항목은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 ‘주택상태’, ‘대중교통 이용’이다.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는 항목은 ‘취약계층 복지 지원’, ‘관리·정돈된 환경·경관’, ‘적은 환경 오염’, ‘교류·친목 활동 활발’, ‘마을 문제 해결 노력’ 등이다.

읍 지역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차이를 확인했다. 안전 부문과 지역사회 부문을 제외한 6개 정책 부문에서 매년 읍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만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증가했고, 그 외 5개 정책 부문에선 감소했다.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문화·여가이다. 매년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약 10점 이상인 세부 항목은 ‘방과 후 교육 기회’,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이용’, ‘문화·여가 시설 이용’,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이다.

2. 시사점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포괄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인 ‘지금의 행복감’을 ‘주관적 웰빙’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행복감이라는 단일 척도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문적으로 검증된 측정 도구인 OECD 삶의 질 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지표를 활용하여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지금의 행복감’은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사이에 차이가 없었지만, 주관적 웰빙의 5개 문항 중 4개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다. 5개 문항의 응답을 평균한 주관적 웰빙 지수는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더 높았다.

분석 결과에 따른 7대 정책 부문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문화·여가 부문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정책 투입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시계

열 분석 결과에서도 이 두 부문의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작년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부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화·여가 여건과 경제활동·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여가 부문은 2017년 조사에서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컸고,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도 가장 컸다. 게다가 문화·여가 부문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 항목 모두 전체 세부 항목 중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다. 시계열 분석 결과에서도 매년 40점대(100점 만점)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문화·여가 부문과 관련해서, 중심지에 집중된 문화·여가 서비스를 배후지까지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정책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과 관련해서,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 기반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만족도는 세부 항목 모두 60점(100점 만점)에 가까워, 7대 부문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런데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대중교통 이용’의 만족도만 50점 초반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다음으로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간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하다.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농어촌 주민의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이 불편해서’였다. 대중교통 여건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여건이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련 정책 사업인 ‘농어촌형 교통 모델 발굴 사업’과 ‘교통서비스 강화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 부문을 가장 중요한 정주 여건으로 꼽았다. 보건·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감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정체된 상태다. 2017년 조사 결과에선, 오히려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 특히 세부 항목 중 ‘취약계층 복지 지원’의 만족도가 2015년 이후 하락했고 2017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노인의 비율이 높고,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다. 제3차 삶의 질 시행 계획에도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업이 부족하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 중에서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다. 면 지역 주민이 의료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부문의 만족도는 조사 이래로 계속 상승했으나, 2015년 이후 정체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세부 항목에서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2016년부터 40점대(100점 만점)로 하락했다.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에서도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10점에 가까웠고 면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4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이 농어촌 지역을 떠나려는 이유 3위로 꼽히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한편, 어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교육의 만족도도 역시 매년 4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정책 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경관 부문의 만족도는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적은 환경오염’ 항목의 만족도가 2015년부터 2년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인을 확인하려고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 동안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0.1%였다. 농어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경관의 훼손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 선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정책 부문에 대한 만족도 중에서 유일하게 이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즉,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경관은 주민이 농어촌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다.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부문은 현재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7대 정책 부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부문의 세부 항목을 2012년부터 계속 조사해왔다. 시계열 분석 결과, 지역사회 부문의 만족도가 8개 정책 부문 중 가장 뚜렷하게 하락했다.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성과 사회적 결속력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어촌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할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부 록 1

삶의 질 시행계획의 정책 사업과 정주 만족도 문항 비교

부문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 정책 사업	설문 문항
보건 · 복지	농어업인 의 특화된 사회 안전망 구축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두루누리사업 활성화	<특정집단 대상>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산지 담보 연금 도입 검토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 지원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보건 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공공보건의로 강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로 서비스 확산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 시범사업(기간내 추진)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분만취약지 지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대상 그룹별 (고령농, 아동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족 등) 복지 서비스 강화	취약농어가 인력 지원	<특정집단 대상>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청소년시설확충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 농업교육		

부문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 정책 사업	설문 문항
	농어촌 복지 전달체계 구축	농어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복모음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사회 서비스형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어촌건강장수마을	
교육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춰져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2017년 신규 문항)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제 육성	농어촌교육지원 체계화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어촌학교 진로교육 강화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제 육성	
	농어촌 학생 복지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특정집단 대상〉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 강화	교육공동체 발굴·지원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 정규 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 평가 개선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주 생활 기반	농어촌중심지활성화 및 마을정비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이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농어촌주택 정비 지원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농어촌형 교통모델 발굴		
	교통서비스 강화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국고여객선 건조		
생활권 연계협력 확대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이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부문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 정책 사업	설문 문항	
정주 생활 기반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7년 신규 문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개발		
		귀농/어/·귀(산)촌 활성화 지원		
		산촌주민 역량강화 사업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농어촌의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수도 미보급 농어촌지역 공용관정 개발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지자체 기초인프라의 계획적 정비 지원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활성화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ICT 기반 행복한 농어촌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령자 맞춤형 공동시설 지원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경제 활동 · 일자리	향토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기반 마련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6차산업 모델 정착		
		어촌 6차산업화 지원		
		농업인의 제조·가공활동 규제완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운영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		
		로컬푸드 확산		
		수산 정보이용 활성화		
	농어업인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	6차 산업화 창업지원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		농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6차산업 경영체의 맞춤형 지원 강화		
		농어촌 전통식식 발굴 및 활용 지원		

부문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 정책 사업	설문 문항
경제 활동 · 일자리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관광두레 조성	
		농어촌관광 품질 제고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어촌관광 활성화(어업문화유산 포함)	
		산림휴양·치유 공간 조성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말산업 육성 지원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농어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어촌유학 활성화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농어가-마을-거점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농어촌 일자리 지원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 활성화			
쿼터확대 및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농어촌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들녘경영체			
문화 · 여가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 구축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	
		농어촌 작은 영화관 조성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지역문화지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문화체육 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이모작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생활문화센터 조성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부문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 정책 사업	설문 문항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문화체육 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전통·향토 문화의 전승·활용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문화관광축제 지원		
환경·경관	농어촌 어머니의 체계적 관리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 확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경관 보전직불제 개선		
		조간불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지급		
		조간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농업유산 지정·관리		
		농어촌경관 및 공간계획 기반기술 구축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농어촌 생태관광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포함)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환경 조성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어구보급		
		해양폐기물 정화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농업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체에너지 보급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				
목재펠릿 사용 확대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로 친환경 에너지 다변화				
해조류 바이오매스 통합 활용 기반 구축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축산분뇨 처리 지원 및 관리 체계화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부문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 정책 사업	설문 문항
		위생관리형 여항 조성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안전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 대응 체계 강화	수리시설 안전관리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소하천정비	
		어항시설 보강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산불방지대책(산불대응력 강화 및 진화자원 확충 포함)	
		산림보호지원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재해에 안전한 영농 활동 기반 조성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 안전표시 등 부착지원 사업 포함)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수산인안전공제(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어업재해보험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현황 조사	
		농업인 업무상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작업안전관리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생활 안전 사각 지대 해소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공개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농어촌 폭력 예방교육 인프라 강화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교통안전활동 (생활도로 구간 확대 포함)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농기계 교통안전 사고예방		

부 록 2

2016년 및 2017년 만족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 항목

부문	2016년	2017년	비고
보건 · 복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교육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 정규 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 정규 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신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신규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이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이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신규	

80 부 록

부문	2016년	2017년	비고
경제 활동 · 일자 리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 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 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농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농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 · 여 가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신규
환경 · 경 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 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부 록 3

2017년 도시·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평균 점수

(10점 척도)

부문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차이 (농어촌-도시)	세부 항목
보건·복지	7.6	6.4	-1.2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3	5.8	-1.5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6.7	5.6	-1.1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6.5	5.7	-0.8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7.1	5.7	-1.4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6	5.6	-1.0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7.0	5.8	-1.2	(평균)
교육	6.8	5.7	-1.1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9	5.6	-1.3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 정규 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6	5.4	-1.2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7.0	6.1	-0.9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7.1	6.0	-1.1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2017년 신규 문항)
	6.9	5.8	-1.1	(평균)
정주 생활 기반	6.9	6.4	-0.4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7.2	6.3	-1.0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7.4	6.2	-1.1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7.3	5.8	-1.6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7.7	6.9	-0.8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7	5.6	-0.2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7년 신규 문항)
	7.0	6.2	-0.8	(평균)
경제 활동·일자리	6.0	5.1	-0.8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6.0	5.3	-0.7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5.8	5.2	-0.6	농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5.9	5.2	-0.7	(평균)

82 부 록

부문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차이 (농어촌-도시)	세부 항목
문화 · 여가	6.7	5.2	-1.5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6	5.0	-1.6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6.3	5.3	-1.1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6.5	5.1	-1.4	(평균)
환경 · 경관	6.7	6.1	-0.6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6.3	5.3	-1.0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5	5.9	-0.6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6.5	5.8	-0.7	(평균)
안전	6.8	6.6	-0.2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6	6.3	-0.3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2	6.7	-0.5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2	6.6	-0.6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7.2	6.1	-1.1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7.0	6.5	-0.5	(평균)

* 농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조사

부 록 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전년 대비 증감

(10점 척도)

부문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세부 항목
	'16	'17	증감 폭	'16	'17	증감 폭	
보건 · 복지	7.8	7.6	-0.2	6.4	6.4	0.1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4	7.3	-0.1	5.9	5.8	-0.1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6.6	6.7	0.1	5.5	5.6	0.1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6.4	6.5	0.1	6.0	5.7	-0.2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7.7	7.1	-0.6	6.0	5.7	-0.3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6.6	-	-	5.6	-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7.1	7.0	-0.1	5.9	5.8	-0.1	(평균)
교육	6.8	6.8	0.0	5.6	5.7	0.1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9	6.9	0.0	5.3	5.6	0.3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 정규 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6	6.6	0.0	5.2	5.4	0.2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	7.0	-	-	6.1	-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	7.1	-	-	6.0	-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2017년 신규 문항)
	6.8	6.9	0.1	5.4	5.8	0.4	(평균)
정주 생활 기반	6.8	6.9	0.1	6.4	6.4	0.1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7.3	7.2	-0.1	6.1	6.3	0.2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7.5	7.4	-0.2	6.0	6.2	0.2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7.6	7.3	-0.2	5.8	5.8	0.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7.8	7.7	-0.2	6.7	6.9	0.2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5.7	-	-	5.6	-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7년 신규 문항)
	7.4	7.0	-0.4	6.2	6.2	0.0	(평균)

84 부 록

부문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세부 항목
	'16	'17	증감 폭	'16	'17	증감 폭	
경제 활동 · 일자리	5.9	6.0	0.1	4.8	5.1	0.4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5.8	6.0	0.2	5.0	5.3	0.4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5.4	5.8	0.4	4.8	5.2	0.4	농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5.7	5.9	0.2	4.8	5.2	0.4	(평균)
문화 · 여가	6.6	6.7	0.1	4.8	5.2	0.4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5	6.6	0.1	4.5	5.0	0.5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6.3	-	-	5.3	-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6.6	6.5	0.0	4.6	5.1	0.5	(평균)
환경 · 경관	6.6	6.7	0.0	6.2	6.1	-0.1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6.1	6.3	0.2	5.1	5.3	0.2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산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5	6.5	0.0	6.2	5.9	-0.3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6.4	6.5	0.1	5.8	5.8	0.0	(평균)
안전	6.8	6.8	0.0	6.7	6.6	-0.1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6	6.6	0.0	6.4	6.3	-0.1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3	7.2	0.0	7.0	6.7	-0.2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1	7.2	0.0	6.4	6.6	0.1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잘 구비되어 있다
	6.6	7.2	0.5	5.9	6.1	0.2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6.9	7.0	0.0	6.6	6.5	-0.1	(평균)

부 록 5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평균 점수 변화

(단위: 점)

대분류	연도별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건복지	5.7	5.9	5.9	5.8	6.4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5.6 -	5.8	5.9	5.8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5.2	5.7	5.5	5.6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5.7	6.0	6.0	5.7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5.9	5.9	6.0	5.7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	-	5.6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017년 신규 문항)
교육	4.9	5.5	5.4	5.8	5.3	5.7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 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	5.5	5.3	5.6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 정규 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7	5.3	5.2	5.4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	-	-	6.1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2017년 신규 문항)
					-	-	-	6.0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2017년 신규 문항)
					5.8	6.5	6.2	6.4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주택·주거환경	5.3	6.0	6.2	6.2	5.0	6.1 도시가스·상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4.8	6.1	6.0	6.2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6	5.7	5.8	5.8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	-	6.7	6.9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	5.6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2017년 신규 문항)
					4.2	4.6	4.8	5.1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전통문화·여가	4.3	4.8	4.8	5.2	4.6	5.3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9	5.0	5.2 농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4.3	4.8	4.8	

부 분	연도별 평균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문화· 여가	3.2	3.6	4.8	4.8	5.2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8	4.6	4.5	5.1	5.0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	-		5.3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환경· 자연	5.8	5.7	6.3	6.2	6.1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9	5.0	5.1	5.8	5.3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산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8	6.4	6.2		5.9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약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6.5	6.7	6.7	6.7	6.5	6.6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4	6.3	6.4		6.3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6	6.8	7.0		6.7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3	-	6.4		6.6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	5.9		6.1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체	5.1	5.6	5.6	5.8	(전체 평균)		

주1: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2015년, 2016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사용함에 유의.

주2: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각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부 록 6

2012년~2017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설문 내용

부문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2016년/2017년
표본수	340	679	1,168	1,774/ 1,950/ 1,991
척도	1~5점	1~5점	0~10점	1~10점
100점 환산 방식	1-2-3-4-5 ⇒ 0-25-50-75-100	1-2-3-4-5 ⇒ 0-25-50-75-100	0-1-2-3-4-5-6-7-8-9-10 ⇒ 0-10-20-30-40-50-60-70 -80-90-100	1-2-3-4-5-6-7-8-9-10 ⇒ 10-20-30-40-50-60-70 -80-90-100
삶의 만족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 사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 사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 사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 사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보건·복지	몸이 아프면 쉽게 병원을 찾아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쉽게 갈 수 있다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 및 보호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가 체계적으로 잘 지원되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되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우리 사군에는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사군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양호하다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사군에는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 사군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성인평생학습 여건이 양호하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이 양호하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부문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2016년/2017년
정주 생활 기반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쾌적하다	주택들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우리 마을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 마을은 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생필품 및 목욕탕, 미용실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 마을은 생필품 구입, 목욕탕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생필품 구입, 목욕탕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생필품 구입, 목욕탕, 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경제 활동 · 일자리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적절한 소득 기회(일거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최근 1년간을 볼 때,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좋아졌다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농업에 기반한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농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 · 여가	주변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등 문화 생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도서관·미술관·문화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미술관·문화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미술관·문화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는 공연, 문화강좌, 노래교실, 요가,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있다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 · 경관	우리 지역의 자연 경관은 매우 훌륭하다	우리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	환경과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름답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우리 지역은 쓰레기분뇨·폐수·매연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지역 사회		마을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마을은 주민들이 합심해서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부 록 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다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구분	연도	표본수	평균값	F(p)
정주 만족도 전체 평균	2012년	339	58.7	18.49 (.000)
	2013년	679	56.2	
	2014년	1,167	54.7	
	2015년	1,774	62.1	
	2016년	1,950	59.1	
	2017년	1,991	58.5	
보건·복지 만족도	2012년	340	44.1	17.05 (.000)
	2013년	673	51.3	
	2014년	1,168	52.1	
	2015년	1,773	54.6	
	2016년	1,950	54.9	
	2017년	1,991	54.0	
교육 만족도	2012년	318	37.7	27.01 (.000)
	2013년	615	44.6	
	2014년	1,168	45.5	
	2015년	1,765	49.8	
	2016년	1,950	48.6	
	2017년	1,991	50.8	
정주생활기반 만족도	2012년	340	58.2	54.62 (.000)
	2013년	681	48.8	
	2014년	1,168	48.3	
	2015년	1,772	55.7	
	2016년	1,950	57.7	
	2017년	1,991	59.0	
경제활동·일자리 만족도	2012년	340	26.6	53.57 (.000)
	2013년	673	42.2	
	2014년	1,168	38.7	
	2015년	1,771	41.9	
	2016년	1,950	42.5	
	2017년	1,991	46.8	
문화·여가 만족도	2012년	334	29.7	85.62 (.000)
	2013년	633	28.3	
	2014년	1,168	28.7	
	2015년	1,764	41.0	
	2016년	1,950	40.3	
	2017년	1,991	45.2	

90 부 록

구분	연도	표본수	평균값	F(p)
환경·경관 만족도	2012년	339	60.0	53.25 (.000)
	2013년	670	67.1	
	2014년	1,168	52.6	
	2015년	1,770	54.4	
	2016년	1,950	53.6	
	2017년	1,991	53.1	
안전 만족도	2014년	1,168	59.1	7.66 (.000)
	2015년	1,771	62.3	
	2016년	1,950	62.4	
	2017년	1,991	61.4	
지역사회 만족도	2012년	340	46.1	15.56 (.000)
	2013년	681	57.1	
	2014년	1,168	54.9	
	2015년	1,767	53.4	
	2016년	1,950	53.7	
	2017년	1,991	50.9	

부 록 8

농어촌 주민의 세부 항목 만족도 다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구분	연도	표본수	평균값	F(p)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2012년	336	51.9	18.10 (.000)
	2013년	664	52.9	
	2014년	1,142	52.5	
	2015년	1,770	57.7	
	2016년	1,950	59.6	
	2017년	1,991	60.1	
보건·복지: 양육·보호 지원	2012년	267	38.2	21.78 (.000)
	2013년	452	44.2	
	2014년	782	46.7	
	2015년	1,763	51.6	
	2016년	1,950	50.1	
	2017년	1,991	51.2	
보건·복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	2012년	295	37.1	29.53 (.000)
	2013년	528	55.0	
	2014년	1,049	52.9	
	2015년	1,769	55.8	
	2016년	1,950	55.1	
	2017년	1,991	52.5	
보건·복지: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	2014년	1,090	53.8	3.964 (0.008)
	2015년	1,767	54.7	
	2016년	1,950	55.5	
	2017년	1,991	52.6	
교육: 양질의 학교 교육	2012년	253	42.8	11.99 (.000)
	2013년	540	48.7	
	2014년	958	47.6	
	2015년	1,763	52.4	
	2016년	1,950	51.4	
	2017년	1,991	52.3	
교육: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2012년	289	39.7	17.80 (.000)
	2013년	558	41.4	
	2014년	1,043	41.7	
	2015년	1,759	47.4	
	2016년	1,950	46.7	
	2017년	1,991	49.2	

구분	연도	표본수	평균값	F(p)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태	2012년	340	61.0	17.21 (.000)
	2013년	677	61.2	
	2014년	1,135	53.4	
	2015년	1,769	61.4	
	2016년	1,950	59.5	
	2017년	1,991	60.4	
정주생활기반: 생활 인프라	2012년	331	64.7	64.00 (.000)
	2013년	657	44.6	
	2014년	1,135	44.6	
	2015년	1,766	52.8	
	2016년	1,950	56.5	
	2017년	1,991	58.4	
정주생활기반: 생활 서비스 이용	2012년	339	49.6	70.97 (.000)
	2013년	671	40.7	
	2014년	1,143	44.3	
	2015년	1,762	56.7	
	2016년	1,950	55.9	
	2017년	1,991	58.1	
정주생활기반: 대중교통 이용	2014년	1,143	50.4	2.944 (0.032)
	2015년	1,765	52.2	
	2016년	1,950	53.3	
	2017년	1,991	52.9	
경제활동·일자리: 소득 기회 획득	2012년	312	31.6	37.06 (.000)
	2013년	610	32.5	
	2014년	1,067	37.2	
	2015년	1,767	40.2	
	2016년	1,950	41.8	
	2017년	1,991	45.9	
경제활동·일자리: 경제활동 여건 개선	2014년	1,080	39.6	17.00 (.000)
	2015년	1,763	43.2	
	2016년	1,950	43.9	
	2017년	1,991	46.2	
경제활동·일자리: 다양한 소득 기회 제공	2014년	1,041	38.1	40.956 (.000)
	2015년	1,763	42.5	
	2016년	1,950	41.9	
	2017년	1,991	48.1	
문화·여가: 문화·여가 시설 이용	2012년	326	29.0	58.60 (.000)
	2013년	596	31.3	
	2014년	1,075	32.0	
	2015년	1,761	42.3	
	2016년	1,950	41.7	
	2017년	1,991	46.3	

구분	연도	표본수	평균값	F(p)
문화·여가: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2012년	318	28.9	101.25 (.000)
	2013년	602	25.0	
	2014년	1,078	24.4	
	2015년	1,759	39.9	
	2016년	1,950	38.9	
	2017년	1,991	44.2	
환경·경관: 관리·정돈된 환경·경관	2012년	333	65.6	36.00 (.000)
	2013년	639	66.3	
	2014년	1,135	51.6	
	2015년	1,768	58.9	
	2016년	1,950	57.9	
	2017년	1,991	56.8	
환경·경관: 적은 환경 오염	2013년	653	67.6	40.08 (.000)
	2014년	1,146	53.4	
	2015년	1,767	59.5	
	2016년	1,950	57.5	
	2017년	1,991	54.6	
안전: 범죄 안전	2014년	1,120	61.8	2.177 (0.089)
	2015년	1,768	63.3	
	2016년	1,950	63.7	
	2017년	1,991	62.2	
안전: 교통 사고 안전	2014년	1,118	56.9	3.16 (0.024)
	2015년	1,765	59.1	
	2016년	1,950	59.5	
	2017년	1,991	58.4	
안전: 자연재해 안전	2014년	1,103	58.0	28.52 (.000)
	2015년	1,768	64.6	
	2016년	1,950	66.2	
	2017년	1,991	63.5	
지역사회: 교류·친목활동 활발	2013년	662	61.1	21.58 (.000)
	2014년	1,114	55.4	
	2015년	1,764	54.6	
	2016년	1,950	54.0	
	2017년	1,991	51.0	
지역사회: 마을 문제 해결 노력	2012년	335	39.9	26.75 (.000)
	2013년	627	58.9	
	2014년	1,097	54.1	
	2015년	1,765	52.2	
	2016년	1,950	53.3	
	2017년	1,991	50.8	

부 록 9

읍·면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전체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2014년	표본수	156	295	156	295	156	295	156	295	156	295	156	295	295
	평균	64.3	58.9	60.4	56.9	54.9	47.8	60.5	51.0	46.0	41.3	44.2	27.8	55.5
	F	6.29**		3.53		11.57***		22.88***		10.19**		4.85***		41.69***
2015년	표본수	764	950	765	948	764	941	765	947	765	946	764	940	945
	평균	63.5	61.1	58.0	51.9	54.0	46.5	61.0	51.4	45.6	38.8	47.2	36.1	52.9
	F	5.68**		32.89***		46.86***		79.66***		8.31***		37.74***		74.36***
2016년	표본수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94
	평균	60.5	57.7	57.0	53.0	52.5	44.8	61.5	54.3	46.0	39.2	48.0	33.0	52.4
	F	7.72***		17.4***		60.78***		56.8***		5.52***		43.75***		157.57**
2017년	표본수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805
	평균	59.6	57.2	55.9	51.2	53.5	47.1	62.1	55.0	48.9	43.8	49.5	39.2	51.4
	F	5.45**		20.82***		41.61***		53.31***		9.23***		25.1***		73.51***

** p < .05, *** p < .01

부 록 10

읍·면 지역 주민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구분	보건·복지										교육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수준		양육 보호 지원		차양계층 복지 지원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		양질의 학교 교육		방과 후 교육 기회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2014년	표본수	154	292	-	-	110	182	136	263	143	273	135	233	-	-	143	255
	평균	65.2	57.6	-	-	56.1	50.5	61.7	59.2	61.1	60.1	57.9	51.2	-	-	52.9	43.2
	F	7.66 ^{***}		-		2.86		0.73		0.13		5.62	**	-		11.64 ^{***}	
	표본수	762	948	765	944	963	940	764	945	763	944	763	940	764	938	762	937
2015년	표본수	63.9	52.7	56.9	50.5	55.4	48.7	57.2	54.6	56.6	53.1	55.2	50.3	55.0	45.7	51.8	43.7
	F	64.3 ^{***}	23.38 ^{***}			34.03 ^{***}		4.34 ^{**}		6.84 ^{***}		16.19 ^{***}		60.16 ^{***}		37.8 ^{***}	
	표본수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	918	994	918	994
	평균	63.9	55.9	56.6	51.8	53.1	47.3	55.9	54.3	55.6	55.6	53.6	49.3	52.6	42.8	51.3	42.2
2016년	F	37.95 ^{***}	14.69 ^{***}			39.91 ^{***}		1.96		0.00		15.61 ^{***}		76.6 ^{***}		53.15 ^{***}	
	표본수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2017년	표본수	63.3	55.7	55.5	50.3	53.3	48.3	53.6	50.9	53.5	51.0	54.3	49.5	54.1	46.4	52.0	45.3
	F	36.46 ^{***}	18.14 ^{***}			20.85 ^{***}		6.12 ^{**}		4.08 ^{**}		19.34 ^{***}		48.62 ^{***}		31.94 ^{***}	

구분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주택 상태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이용		통신시설 이용		소득 기회 획득		경제활동 여건 개선		다양한 소득 기회 제공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2014년	표본수	154	285	154	282	154	289	153	286	-	-	141	272	142	269	134	268	
	평균	62.5	59.2	57.6	45.1	61.8	45.0	60.3	53.7	-	-	45.5	41.1	45.3	43.2	49.0	39.4	
2015년	F	1.96		16.58	***	31.98	***	5.46	**	-		2.04		0.62		11.17	***	
	표본수	764	945	964	942	763	939	763	942	965	942	765	942	764	939	763	940	
2016년	평균	63.2	60.0	59.7	47.1	64.1	50.7	56.9	48.4	70.5	64.5	44.4	36.5	46.3	40.9	46.3	39.6	
	F	7.28	***	86.61	***	110.26	***	37.85	***	23.36	***	38.17	***	19.98	***	28.44	***	
2017년	표본수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평균	60.6	58.6	60.7	52.8	62.1	50.1	56.4	50.2	67.5	59.6	45.3	38.3	46.5	41.3	46.3	37.8	
2018년	F	3.11		39.17	***	93.11	***	22.52	***	43.92	***	32.74	***	20.43	***	51.26	***	
	표본수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2019년	평균	62.0	58.4	62.3	53.3	62.0	53.0	55.4	49.4	68.8	60.9	48.3	42.6	48.5	43.0	49.9	45.6	
	F	10.92	***	58.36	***	55.83	***	21.74	***	48.47	***	22.79	***	24.88	***	14.43	***	

구분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문화·여가 시설 이용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관리·정돈된 환경·경관		에너지 비용 절감		범죄 안전		교통 사고 안전		대응 시설 접근성		안전한 작업 환경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음	면	
2014년	표본수	146	268	148	271	153	286	-	-	151	281	151	284	-	-	-	-
	평균	48.8	30.7	40.1	22.6	62.7	53.4	-	-	68.8	67.0	64.0	58.9	-	-	-	-
2015년	F	33.26 ^{***}		37.63 ^{***}		12.42 ^{***}		-		0.50		4.17 ^{**}		-		-	
	표본수	763	938	763	936	765	943	760	935	765	943	764	941	-	-	-	-
2016년	표본수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918	994	206	458
	평균	49.9	34.1	46.2	31.9	58.8	57.0	48.1	42.4	62.6	65.0	59.3	60.0	64.7	56.0	57.5	52.5
2017년	F	154.61 ^{***}		125.82 ^{***}		2.57		25.54 ^{***}		4.15 ^{**}		0.42		51.15 ^{***}		5.82 ^{**}	
	표본수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129	805	197	318
2018년	표본수	50.6	40.3	48.3	38.2	57.6	55.6	50.2	44.8	61.9	62.6	58.7	58.1	64.3	58.1	56.4	56.6
	F	67.34 ^{***}		66.95 ^{***}		3.35		25.13 ^{***}		0.34		0.31		29.64 ^{***}		0.01	

** p<.05, *** p<.01

부 록 1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처리될 것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

※ 조사 책임: 유은영 연구원(☎ 061-820-2290) / 박지숙 연구원(☎ 061-820-2127)

*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부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조직입니다.

LOC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포항
SEX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AGE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만 19세 미만 면접중단 만 ()세 (* 만 19세 이상만 응답)

Q01.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사도 ()시군 ()읍·면/동 ()리(행정리)

Q02. 현재의 마을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Q03. 다음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 ⑩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⑩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① ----- ⑩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십니까?	① ----- ⑩	()점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⑩	()점

Q04.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종합	나는 지금 행복하다	①----- ⑩	()점
	나는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⑩	()점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⑩	()점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⑩	()점

100 부 록

Q05.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보건 · 복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⑩	()점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①-----	⑩	()점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①-----	⑩	()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①-----	⑩	()점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⑩	()점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⑩	()점	
교육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⑩	()점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 정규 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⑩	()점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⑩	()점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①-----	⑩	()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⑩	()점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①-----	⑩	()점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①-----	⑩	()점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이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⑩	()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⑩	()점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⑩	()점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⑩	()점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⑩	()점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⑩	()점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①-----	⑩	()점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①-----	⑩	()점	
경제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①-----	⑩	()점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점수
		①-----⑩	①-----⑩	
활동 · 일자리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①-----⑩	①-----⑩	()점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①-----⑩	①-----⑩	()점
문화 · 여가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⑩	①-----⑩	()점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①-----⑩	①-----⑩	()점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문화를 접할 수 있다	①-----⑩	①-----⑩	()점
환경 · 경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①-----⑩	①-----⑩	()점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①-----⑩	①-----⑩	()점
	쓰레기분노·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①-----⑩	①-----⑩	()점
지역 사회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①-----⑩	①-----⑩	()점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①-----⑩	①-----⑩	()점

Q06. 아래 문항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질문에 답해주시시오.

※ ‘지역’은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11점 척도)

설문 문항	부정적-변화없음-긍정적
우리 마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마을단위의 정책 사업 지원을 받게 되었다.	①-----⑥-----⑩
우리 마을에 최근 3년 동안 젊은 층의 주민들이 늘어났다.	①-----⑥-----⑩
내가 사는 지역에 최근 3년 동안 생활문화센터 등과 같은 여가 시설이 늘어났다.	①-----⑥-----⑩
내가 사는 지역에 최근 3년동안 지자체 사업이나 정부사업 등의 지원으로 주민들이 함께 문화활동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①-----⑥-----⑩
내가 사는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연경관이 오히려 나빠졌다.	①-----⑥-----⑩
내가 사는 지역에 최근 5년 동안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①-----⑥-----⑩
내가 사는 지역에 최근 5년 동안 축사가 늘어났다.	①-----⑥-----⑩
내가 사는 지역에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줄어, 빈집이 많아졌다.	①-----⑥-----⑩
최근 5년 동안 지역사회 활동(행사,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①-----⑥-----⑩
지역사회 활동(행사, 모임 등)에 나이·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기 어렵다.	①-----⑥-----⑩
지역사회 활동(행사, 모임 등)에 참여할 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①-----⑥-----⑩

Q08-2. 말씀하신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가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어려우시면 [보기] 제시

[보기]		
정주생활기반	① 생필품 구입이나 목욕탕, 미용실 등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②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좋지 않다	
	③ 교통이 불편하다	
	④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주택의 노후·불량 등)	
	⑤ 난방비가 많이 든다	
경제활동	⑥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 기회를 찾기 위해(구직, 창업 등) /농촌에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지역사회	⑦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교육	⑧ 자녀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⑨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환경경관	⑩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건의료	⑪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복지	⑫ (영유아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다	
문화여가	⑬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안전	⑭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⑮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그 외	⑯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개인 희망이 아닌)	
	⑰ 마을에 (교류하고 지낼 만한) 사람이 너무 없어서	

☞ ⑱ 기타: (내용:)

Q09. 선생님께서는 귀농·귀촌하셨습니까? ()

- ① 그렇다 ☞ Q09-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 Q10번 문항으로

(Q09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Q09-1. 귀농·귀촌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Q10. 선생님은 지역사회 활동(행사모임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 ① 전혀 참여 안 한다 ②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④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104 부 록

Q11. 선생님 댁의 주택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연립/빌라) ③ 아파트
- ④ 비거주용 건물 ⑤ 기타()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2. 선생님 댁의 주택 거주(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자가 ② 전·월세 ③ 무상 ④ 기타()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개인 및 가구 관련 질문입니다.

DQ01. 선생님께서는 결혼하셨습니다? ()

- ① 기혼 ② 미혼

DQ02. 선생님의 최근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상당히 좋다 ② 양호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좋지 않다 ⑤ 상당히 좋지 않다
-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3. 선생님 댁의 최근의 가정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상당히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상당히 불만족한다
-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4.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 ⑤ 대학원 이상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5. 현재 선생님은 어떤 일(직업)을 하십니까? 여러 일을 하신다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을 답 해주십시오.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관리직(관공서, 회사 등)
-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퇴직 ⑧ 무직
- ⑨ 기타()

참고문헌

- 김정호, 유제민, 서경현, 임성건, 김선주, 김미리혜, 공수자, 강태영, 이지선, 황정은. (2009).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보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87-205.
- 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16년 추진실적 및 '17년 시행계획』
- 박성복. (2013).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와 그 요인들 간의 통합적 영향관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3호, 2013.11, 253-277
- 박주언, 심수진, 이희길, 『주관적 웰빙 측정 방안』, 통계개발원, 2012.
- 송미령, 김광선, 성주인, 채종현, 최용욱. (2012).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채종현. (20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노승철, 권인혜, 한태녕. (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현송. (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 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 21-47.
- 정도채, 심재현, 유은영. (2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심재현, 유은영. (2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윤지, 황정임, 신호연 (2014). '귀농정착자의 정주 만족도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5권 제3호, 2014.9, 321-338
- Berger-Schmitt, Regina and Noll, Heinz-Herbert (2000) 'Conceptual Framework and Structure of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EuReporting Working Paper*, No. 9, Mannheim: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 (ZUMA).

- Diener, Ed(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Tov, W. (2012).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In K. C. Land, Michalos, A.C., & Sirgy, M.J. (Eds.),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of-life research*, (pp. 137-157). New York & London: Springer.
- Helliwell, John F., Richard Layard & Jeffrey Sachs, eds.(2015), *World Happiness Report 2015*,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oon, Andre van(2007), 'A Short Introduction to Subjective Well-being: Its Measurement, Correlates and Policy Uses',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 OECD(2011), *How's Life*.
-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
- Strumpel, B. (1972). 'Economic behavior and economic welfare: Models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Human behavior in economic affairs: Essays in honor of George Katona with concluding comments by George Katona*, 83-107.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Ven, Peter van de(2015),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on New Measures of Well-being: Perspectives from Statistical Off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1(1): 1~3.